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사 학 위 논 문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 분석

2011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미디어디자인 학과

시각·영상커뮤니케이션 전공

김 영 호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김지현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 분석

Structural Analysis of Hybrid Text

2011년 0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미디어디자인 학과

시각·영상커뮤니케이션 전공

김 영 호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김지현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 분석

Structural Analysis of Hybrid Text

위 논문을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0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미디어디자인 학과

시각·영상커뮤니케이션 전공

김 영 호

김영호의 디자인학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0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 분석

한성대학교 대학원

미디어디자인학과

시각·영상커뮤니케이션전공

김 영 호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미디어 환경으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기호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며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하이브리드 현상은 텍스트에서도 나타나는데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기호들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텍스트를 본 연구에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라 규정하였다.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표현의 총체적 수단이며, 우성적 진화의 결과로 개별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지향하는 이중성을 가지며 비선형성, 비결정성, 다양성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표현의 방법과 해석의 다양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구조 분석을 통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이해는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하이브리드의 ‘효과와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과 근거를 제공한다. 더욱이 새로운 매체의 출현과 미디어의 융합현상은 현재의 시점에서 완료된 것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 진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매체의 진화는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복잡하게 진행될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 연구는 미래에 나타나게 될 새로운 텍스트와 매체에 대한 예측과 준비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하이브리드’의 연구가 부족하여 근접 학문(기호학, 미학, 철학, 물리학, 정보이론 등)으로부터 하이브리드에 대한 개념을 차용하고, 텍스트에 대입시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성 요소들의 관계 구조를 ‘교환 가능한 이질적 요소들의 결합’, ‘우성적 진화를 위한 엷물림의 결합’,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의 자유로운 결합’ ‘매체와 내용의 유동적 결합’으로 유형화하고 이 4가지 구조를 가지고 선별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외부 구성 요소는 대상, 생산주체, 해석주체 그리고 거시적 맥락으로 구성된다. 내부 구성 요소에는 기표와 기의를 포함하는 기호층과 텍스트층, 기호층과 텍스트층을 통합하는 통합표지층과 의미를 포함하는 의미표현층 그리고 내부 구성 요소를 연결하는 연결매체와 미시적 맥락이 있다. 이상으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1.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이질적 요소들의 결합이다. 이질적 요소들의 결합은 동질적 매체의 결합으로 개별성과 통일성을 가지는 단순한 이중의 합이 아닌 새로운 의미로서의 결합으로 인간의 총체적 표현수단이다.

2.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상보성의 원리와 엷물림의 결합으로 요소들을 구조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우성적 진화의 모습이다. 특히 엷물림 구조에서 나타나는 화학적 병치혼합은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에서 요소들의 개별성과 통일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며 두 요소의 장점을 혼합하여 더 좋은 결과로 발전시킨다.

3.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에서 각 요소들은 역동적인 엔트로피의 성격을 가지며 이렇게 활성화된 구조는 결정된 상태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의 결합으로 언제든지 해체되어지고 재구성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늘 역동적이고 불안정한 모습은 정보량의 증가와 다양성을 증가시켜 여러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4.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에 나타나는 매체와 내용과의 관계는 고정되지 않은 비결정적인 유동적 협력관계의 결합으로 다양한 종류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합에 의한 다양한 매체의 융합은 전달과정에서의 감각을 확장시켜 텍스트의 생산주체와 해석주체를 더욱 친밀하게 연결하고, 교감을 통한 전달의 사실성을 증가시킨다.

【주요어】 하이브리드, 텍스트, 상호텍스트성, 구조, 결합, 커뮤니케이션, 정보



목 차

제 1 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	6
1. 텍스트의 개념과 구조	6
1.1. 텍스트의 개념	6
1.2. 텍스트의 구조	12
2. 하이브리드의 개념	15
2.1. 이질적 요소의 결합	15
2.2. 우성적 요소의 진화	16
2.3. 예측 불가능한 요소의 출현	17
3.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규정	18
제 3 장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	2
1.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성 요소	20
1.1. 외부 구성 요소	20
1.2. 내부 구성 요소	21
2.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결합 구조	25
2.1. 교환 가능한 이질적 요소들의 결합	25
2.2. 우성적 진화를 위한 엇물림의 결합	28
2.3.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의 자유로운 결합	34
2.4. 매체와 내용의 유동적 결합	38

제 4 장 사례를 통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 구조 분석 · 41

1. 시각텍스트와 시각텍스트의 결합 1 -이집트의 ‘나르메르 화장관’ 41
2. 시각텍스트와 시각텍스트의 결합 2 -르네 마그리트의 ‘꿈의 열쇠’ 46
3. 시각텍스트와 청각텍스트의 결합 -오페라 실황중계 영상 ‘라보엠’ 51
4. 시각텍스트와 청각텍스트 및 후각, 촉각텍스트의 결합 -영화 ‘쿵푸팬더 2’ 59

제 5 장 결 론 64

【참고문헌】 67

ABSTRACT 74



HANSUNG
UNIVERSITY

【 표 목 차 】

<표 2-1> 텍스트성의 기준	7
<표 2-2> 텍스트 범위의 확장	10
<표 2-3> 텍스트의 구분	11
<표 2-4> 텍스트의 선형적 모델과 비선형적 모델	14
<표 3-1>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외부 구성 요소	20
<표 3-2> 기호의 구조	21
<표 3-3>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 연구 모델 1	22
<표 3-4>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 연구 모델 2	22
<표 3-5>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 연구 모델 3	23
<표 3-6>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생산과정	26
<표 3-7> 문자텍스트와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 비교	28
<표 3-8>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 연구 모델 4	30
<표 3-9> 생산주체와 해석주체에 의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해석	31
<표 3-10>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 연구 모델 5	32
<표 3-11>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 연구 모델 6	33
<표 3-12> 기호들의 결합	34
<표 3-13>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해석과정에서 나타나는 대립항	36
<표 3-14>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 연구 모델 7	37
<표 3-15> 인력과 엔트로피의 관계 모델	38
<표 3-16>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에서 에르곤과 파레르곤의 관계	40
<표 4-1> 나르메르 화장관에서 그림문자로 된 텍스트의 해석	41
<표 4-2> 나르메르 화장관의 해석 순서	43
<표 4-3> 나르메르 화장관의 구조 1	43
<표 4-4> 나르메르 화장관의 구조 2	44

<표 4-5> 나르메르 화장관의 구조 3	45
<표 4-6> 꿈의 열쇠의 구조 1	47
<표 4-7> 꿈의 열쇠의 구조 2	47
<표 4-8> 꿈의 열쇠의 구조 3	48
<표 4-9> 꿈의 열쇠의 구조 4	49
<표 4-10> 꿈의 열쇠의 구조 5	50
<표 4-11> 라보엠의 구조 1	53
<표 4-12> 라보엠의 구조 2	53
<표 4-13> 라보엠의 구조 3	54
<표 4-14> 라보엠의 구조 4	55
<표 4-15> 라보엠의 구조 5	56
<표 4-16> 라보엠의 구조 6	57
<표 4-17> 라보엠의 구조 7	58
<표 4-18> 쿵푸팬더 2의 구조 1	61
<표 4-19> 쿵푸팬더 2의 구조 2	61
<표 4-20> 쿵푸팬더 2의 구조 3	62
<표 4-21> 쿵푸팬더 2의 구조 4	63

【 그림 목 차 】

<그림 4-1> 꿈의 열쇠	46
<그림 4-2> 오페라 실황중계 영상 라보엠 중 1막 3장의 부분	51
<그림 4-3> 쿵푸팬더 2	59
<그림 4-5> 쿵푸팬더 2 부분	59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오늘날 디지털 매체는 그림을 비롯한 문자, 음악, 동영상 등의 다양한 기호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도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전달하고 전달받을 수 있게 한다. 더욱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사용자에게 단일 기호가 아닌 복합 기호의 사용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특히 오감을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정보의 주체와 적극적인 교감을 통해 보다 사실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데 오늘날 이러한 복수의 기호나 매체를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새로운 것 없는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복수 기호의 ‘섞임’ 또는 ‘결합’을 ‘하이브리드’로 설명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hybrid)는 잡종(雜種), 변종(變種)을 뜻하는 말로 고대 라틴어의 ‘hibrida’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 생물학에서의 하이브리드는 교잡종(交雜種)의 의미로 두 가지 기능이나 역할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로 합쳐진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유전학자 멘델(Mendel, Gregor Johann)이 세대가 짧은 생물을 실험하여 얻은 결과를 계기로 18~19세기 생물학에 차용¹⁾하면서부터 사용되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의 개념은 문화적 결합 현상에서부터 생물학, 물리학, 문학, 매체미학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이브리드와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퓨전(Fusion), 크로스오버(Crossover), 컨버전스(Convergence) 모두 두 개 이상의 것들이 합쳐져 새로운 하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개념들은 결합된 현상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다. 텔레비전에서 사용되는 음성기호와 시각기호의 결합은 ‘1+1’의 관계가 아닌 하이브리드의 결과로 생겨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시각의 특성과 청각의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시청

1) 김연순(2008), 「현대문화와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컬처연구소 편, 『하이브리드컬처』,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p.11.

각이라는 새로운 표현방법을 지닌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라는 기제를 구조적 차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단순히 ‘섞임’이나 ‘결합’의 결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다. 즉 요즈음 사람들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제품이나 어떠한 표현에 새로운 매체를 등장시키는 것을 보고 단순히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적’이라는 표현을 한다. 따라서 하이브리드를 그저 단순한 ‘섞임’이나 ‘결합’을 나타내는 표면적 결과로써의 이해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은 하이브리드 현상이 어떠한 구조로 작동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말과 신체언어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에서부터 문자, 그림, 사진, 소리, 동영상 등의 매체 발달에 의해 진화해 왔으며 현재에도 끊임없이 진화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진화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가속되어 지금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정보의 공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성까지 교감할 수 있는 차원의 연구와 환경의 제공으로 그 범위가 넓혀져 가고 있다. 그에 따른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계 변화, 디지털을 기반으로 둔 융합미디어 현상 등은 모두 사회적 하이브리드 현상의 한 부분으로 이해될 수가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의 진화에 따른 하이브리드 현상도 함께 진화 발전하여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만들어 낼 것이다. 즉 하이브리드의 구조에 대한 물음은 곧 다가올 미래 환경에 대한 준비의 과정으로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고 새롭게 진화될 환경으로의 도약을 예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 하이브리드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를 위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낀다.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되고 있는 ‘텍스트’²⁾에 나타나는 하이브리드 현상을 규명하는 연구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다. 즉 텍스트에 나타나는 하이브리드 현상의 구조를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접근함으로써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구조 분석을 통한 ‘하이브리드

2) 텍스트의 개념과 구조에 관한 논의는 2장에서 다루게 된다.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이해는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하이브리드의 '효과가치와 활용'을 위한 연구의 단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본 연구가 단편적인 결과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닌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에 대한 연구의 시작임을 의미한다. 아울러 연구를 통하여 제시되는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텍스트의 이해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으며 새로운 텍스트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은 음성언어에서부터 다양한 문자, 도상기호 등 광범위하다. 특히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단일 기호가 아닌 복수의 기호를 함께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텍스트 역시 복수의 기호에 의해 만들어 지는데 이때 텍스트는 동질적 관계의 기호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질적 관계의 기호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이질적 관계의 기호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텍스트이다. 이를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라 하고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를 규정하기 위해 연구자는 텍스트의 기본 개념을 문자가 아닌 다른 기호의 결합에 의해 생산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보고 보그란데(B. de. Beaugrande)와 드레슬러(W. Dressler)가 제시한 텍스트성(textuality), 후설(Edmund Husserl)의 텍스트에 대한 지질학적 은유와 여러 학자들의 텍스트에 관한 입장들을 근거로 사용한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하이브리드'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근접 학문(기호학, 미학, 철학, 물리학, 정보이론 등)으로부터 하이브리드에 대한 개념을 차용하고, 텍스트에 대입시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를 파악한다. 그 근거가 된 이론은 생물학에서 다루는 잡종 생장력(hybrid vigour)과 모건(C. L. Morgan)과 알렉산더(S. Alexander)의 창발적 진화(創發的進化, emergent evolution),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루카치(Georg

Lukacs)의 미학에 나타나는 동질적 매체(homogene Medium), 양자역학의 상보성(complementarity)과 불확정성의 원리(uncertainty principle), 머빈(N. David. Mermin)의 엇물림(相關關係, correlation), 정보이론에서의 엔트로피(entropy),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차연(差延, differance), 에르곤(ergon)과 파레르곤(parergon)에 대한 내용 등이다. 이어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를 구성하는 이질적 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구조를 제시된 근거를 기준으로 하여 4가지로 유형화한다. 4가지의 구조 유형은 상호 테스트성을 중심으로 한 ‘교환 가능한 이질적 요소들의 결합’, 양자역학의 이론과 하이브리드의 잡종 생산력을 중심으로 한 ‘우성적 진화를 위한 엇물림의 결합’, 정보이론에서 엔트로피의 개념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한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의 자유로운 결합’ 마지막으로 에르곤과 파레르곤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매체와 내용의 유동적 결합’ 등이다. 이 4가지 구조를 가지고 선별된 사례를 분석한다.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사례의 선정은 인간의 감각기관 중 자극에 대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각기호를 중심으로 다른 감각기호와 결합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로 추출하였다. 시각과 시각의 결합으로는 대표적인 시각텍스트인 문자텍스트와 그림텍스트, 시각과 청각의 결합은 문자텍스트와 그림(사진)텍스트와 청각텍스트의 세 가지 이질적 결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각과 청각, 촉각과 후각이 결합된 텍스트로 문자텍스트와 그림(사진)텍스트, 청각텍스트와 기계장치에 의한 촉각, 후각텍스트의 이질적 관계들의 결합으로 선택하였다. 촉각과 후각을 함께 다룬 것은 이 두 감각에 의한 텍스트의 생산과 사용은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독립적인 텍스트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수준이며, 후각텍스트의 경우에는 아직 단순한 냄새에 의한 정보전달의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텍스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후각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의 기생텍스트로서의 위치로 이해하여 촉각텍스트와 함께 다루었다. 그리고 시각텍스트와 결합되는 이질적 감각으로 미각을 제외시킨 이유는 미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텍스트로써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은 아직 연구 개발된 사례가 나와 있지 않으며, 미각에 의한 커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도 일반화 되어 있지 않고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의 선정에서 시각텍스트와 시각텍스트의 결합 사례를 2가지로 상정한 것은 간단한 구조의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에서부터 복잡한 구조로 점증적 사례분석을 하기 위함이며, 동일한 구조의 결합에서 기록을 통한 정보의 정확한 소통을 위한 사례와 예술작품으로서 다양한 해석을 통한 소통의 두 구조를 비교해 볼 기회를 갖기 위함이다.

연구에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의 범위는 언어·몸짓 등의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하는 정신적·심리적인 전달 교류라는 개념적 사용에서부터 실제적 표현 매체로 디자인된 물질적 차원의 형상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제 2 장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

1. 텍스트의 개념과 구조

1.1. 텍스트의 개념

텍스트란 일반적으로 책·잡지의 본문이나 모든 형태의 글, 문서를 의미한다. 빌렘 플루서(Vilém Flusser)는 텍스트에 대하여 ‘하나의 직물’³⁾이라 하여 생산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텍스트는 반제품의 형태로 수용자에게 완제품으로 완성된다고 말하였다.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는 그의 언어학 이론에서 전언과 텍스트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텍스트의 내용은 다수준(multilevel)을 띤 담론(discourse)’⁴⁾이라 말했다. 또 한국텍스트언어학회에서는 텍스트를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단위로 보고 텍스트의 ‘화자가 사용한 언어 표현들이자 이 언어 표현들에 대한 청자나 독자의 해석’⁵⁾이라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의미를 이야기나 언술로 바꾸는 것을 담론이라 할 때, 텍스트란 담론이 쓰인 형태이며 생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표현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나타나며, 텍스트는 수용자가 없이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이러한 복합적 구성물인 텍스트를 사용하는데 텍스트는 소리일 수도 있고 글자나 그림텍스트일 수도 있으며 또 다른 다양한 형태일 수 있다.

보그란테와 드레슬러는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⁶⁾에서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만들어 주는 자질을 ‘텍스트성’이라 명명하고 그 특징을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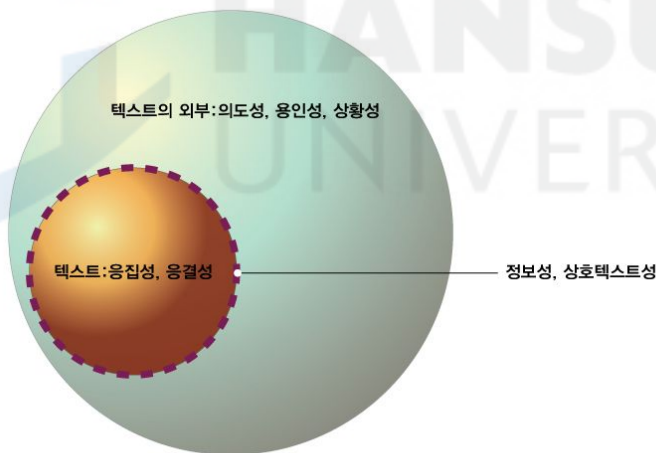
3) Vilém Flusser, 윤종석 옮김(1998),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 서울: 문예출판사, p.75

4) Umberto Eco, 서우석 옮김(1996), 『기호학 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p.67.

5) 한국텍스트언어학회(2007),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박이정, pp.18-19.

6)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는 서울 한신문화사에서 김태욱·이현호에 의해 2002년 『텍스트언어학 입문』으로 출간되었다

성(intentionality), 용인성(acceptability), 응결성(cohesion), 응집성(coherence), 상황성(situationality),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정보성(informativity)의 일곱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박나리는 이러한 텍스트성에 대하여 “텍스트 생산자는 자신의 의사소통 목적(텍스트생산의 목적인 의도성)을 성취하기 위해 텍스트가 놓이는 상황(상황성)과 수용자의 용인 정도(용인성)를 고려하여 통일되고 일관된 의미의 흐름(응집성)을 갖는 문장연속체(응결성)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생산된 다른 텍스트를 가져와 언급하기도 하고(상호텍스트성), 표현의 개성을 살림으로써 정보전달의 효과(정보성)를 높이기도 한다.”고 설명한다.⁷⁾ 이러한 텍스트성은 텍스트와 직접 관련이 되는 응집성과 응결성, 텍스트의 외부와 관련되는 의도성, 용인성, 상황성, 그리고 텍스트와 텍스트의 외부 사이에서 관계되는 정보성과 상호텍스트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정보성은 텍스트에 의해 제공되는 내용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⁸⁾에 관한 것으로 텍스트의 내용에 관련되나 텍스트 외부의 수용자의 상황이나 판단에 의해 결정되며,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와 텍스트 외부의 다른 기호나 텍스트들과의 관계를 말한다.



<표2-1> 텍스트성의 기준

7) 박나리(2009), 「학술논문의 텍스트성(textuality) 분석」,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p.16.

8) 오병근·상성중(2008), 『정보디자인 교과서』, 서울: 안그라픽스, p.22.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봤을 때 텍스트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응집성은 내용에 관한 것이고 응결성은 텍스트 내의 기호들의 연결에 관한 것으로 ‘텍스트 표층의 문법적 연관성’⁹⁾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텍스트가 문자로 이루어진 형태일 경우이다. 텍스트의 형태가 문자 이외의 기호를 허용한다면 응결성은 문법적 연관성만이 아닌 다른 연관성을 포함해야 한다.

상호텍스트성은 줄리아 크리스테바에 의해 만들어진 문학을 위한 비평 용어로서 ‘하나의(또는 여러 개의) 기호 체계(들)가 또 다른 기호체계(들)로 전위(transposition)되는 것’¹⁰⁾을 말한다. 고영근의 “국어학과 언어학에 서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산출하는 언어적 표현을 텍스트라 보지만, 일부 문화기호학자들은 언어 텍스트뿐 아니라 예술작품, 신문 기사와 같은 저널리즘, 대중문화 산물, 옷차림과 같은 유행, 민담 같은 민속 문화 산물을 포함한 모든 문화적 가공물을 텍스트로 본다.”¹¹⁾는 주장은 바로 이와 같은 상호텍스트성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상호텍스트성은 사회, 문화, 정치와는 독립된 국소적 관점에서 다루어 졌으나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인용, 모방, 합성 등에 의한 탈장르적 구분과 미디어에 의한 상호매체적 관계에 까지 확대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한국텍스트언어학회에 의하면 “모든 상호텍스트는 그 선조 텍스트라 할 수 있는 선(先)텍스트로부터 질적, 양적으로 변형을 거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변형의 하위 범주로 ‘대체, 첨가, 확장, 압축, 치환, 복합’을 두고 대체를 ‘매체의 대체, 언어의 대체, 장르의 대체’로 구분하였다. 한국텍스트언어학회에서 제시한 매체의 대체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¹²⁾

매체의 대체 예

(1) 언어 기호 ⇔ 시각 기호

셰익스피어의 희곡 ⇔ 헨리 후설리의 일러스트레이션

9) 한국텍스트언어학회(2007), 전게서, p.43.

10) 줄리아 크리스테바, 『시적 언어의 혁명』, 김인환 역(2000), 서울: 동문선, p.66.

11) 고영근(1999), 『텍스트이론: 언어문학통합론의 이론과 실제』, 대우학술총서 448, 서울: 아르케, pp.4-8.

12) 한국텍스트언어학회(2007), 전게서, pp.214-217.

(2) 언어 기호 ⇨ 청각 기호

괴테의 ‘파우스트’ ⇨ 프란츠 리스트의 ‘파우스트 교향곡’

(3) 시각 기호 ⇨ 언어 기호

르네 마그리트의 77회화들 ⇨ 알랭 로브 그리예의 소설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4) 청각 기호 ⇨ 언어 기호

베토벤의 ‘크로이체르 소나타’ ⇨ 톨스토이의 ‘크로이체르 소나타’

(5) 청각 기호 ⇨ 시각 기호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 ⇨ 모리스 베자르의 발레 ‘볼레로’

(6) 시각 기호 ⇨ 청각 기호

빅터 하트만의 회화들 ⇨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풍경들’

상호텍스트성은 기호체계를 다른 기호체계로 ‘전위’시켜 문자 이외의 다른 기호에 의한 텍스트가 생산될 수 있게 한다.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문자이외의 기호에 의한 텍스트의 생산은 고대에서도 사용되었는데 다음은 이러한 사실을 말해 주는 기사 내용이다.

최근 미국 하버드대학 개리 어튼 박사 등은 고대 잉카 제국의 행정 중심지인 푸루추코(현재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북쪽으로 11km 떨어진 도시)에서 발견된 키푸 21개를 컴퓨터 분석한 결과, 당시 지도자들과 회계 담당관들이 인구 조사나 공물 수집 등 행정 정보를 주고받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사이언스 최신호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특히 결승문자 가운데 첫 부분에 8자 모양의 매듭 3개가 있는 경우, 이는 당시 푸루추코라는 왕궁을 뜻하는 단어라고 추론했다. 어튼 박사는 “이런 형태의 결승문자가 지방 행정당국 안에서 돌았다면 관리들은 즉시 푸루추코 궁과 관련된 회계 장부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¹³⁾

고대 잉카제국에서 매듭을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문자¹⁴⁾가 아닌 다른 기호를 이용하여 정보를 기록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문자 이외의 기호를 이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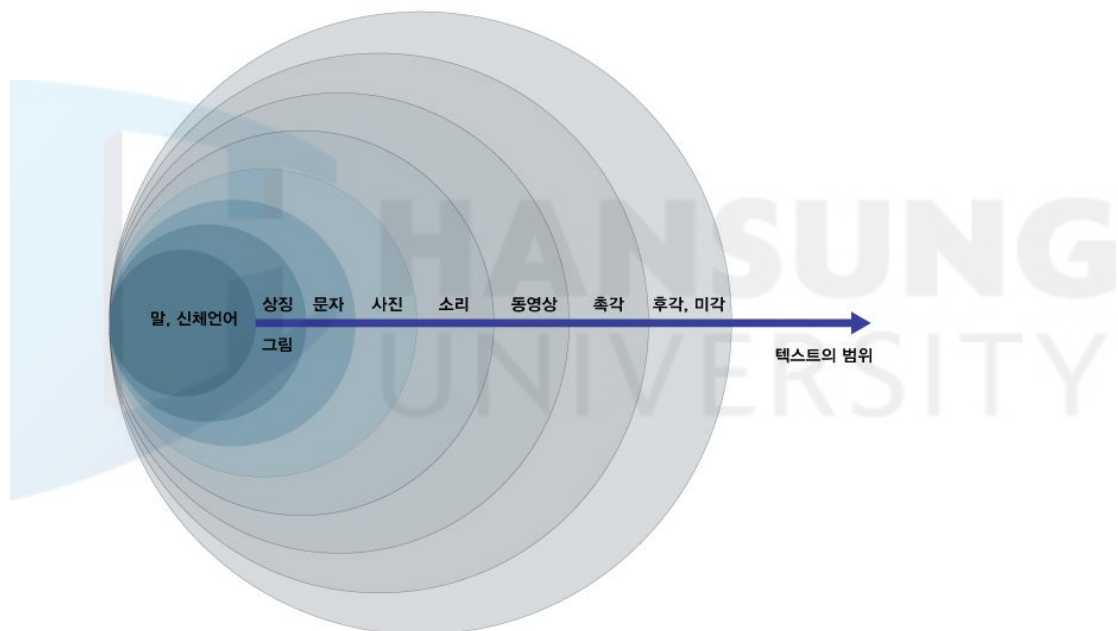
문자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에 의해 정해진 시각적인 기호체계

13) 전병근, 「잉카제국 결승문자 뜻 풀었다」, 『chosun.com』, 2005.08.13,

<<http://news.chosun.com>>, 2011/5/18.

14) 한글이나 알파벳 등 보편적 의미에서의 문자를 말한다.

로 이러한 약속 체계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또한 인류의 역사과정에서 문자의 사용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문자를 시작으로 발달된 문자 체계는 구어의 표현으로 서술성을 가지는 통시적 성격의 선형적 텍스트의 발달을 가속시켜 문자를 중심으로 발전되었고 인쇄술의 발달은 심상위주의 관념 이미지에서 시각 이미지로, 즉 청각중심의 감각을 시각중심의 감각으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소리를 저장하는 녹음기술의 발명이 있기 전까지 지속되었으며 소리의 기록은 시각중심의 텍스트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음성텍스트가 가지는 시간성의 제약을 벗어나게 하여 보다 더 자유로운 텍스트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표2-2>는 확장되어 가는 텍스트의 범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2-2> 텍스트 범위의 확장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매체의 발달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서 다양한 텍스트의 출현을 가속화 시켰는데 매체의 종류에 따라, 감각의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기호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텍스트가 분화되었다. 특히 매체는 자신의 속성에 따라 전달하는 정보를 각각 다르게 반영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과 내용일 지라도 다른 형태의 텍스트가 만들어진다. 최근에 나타난 융합 미디어 환경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텍스트가 생산되고 사용되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산되고 사용되고 있다.

김영순은 ‘확대된 텍스트’를 제안하면서 “확대된 텍스트란 구두로 발화되었든, 문자로 쓰였든 언어적 통보체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비롯하여 영상이나 톤에 의한 정보들의 결합체에 의해 구성된 텍스트를 말한다”¹⁵⁾라고 하였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텍스트를 표¹⁶⁾로 구분하였다.

통합 경로	시청각텍스트						
채널 방식	시각텍스트				청각텍스트		
기초 체계	그림텍스트				언어텍스트		소리텍스트
					문자 텍스트	구두 텍스트	
기술 양식	전통적 그림텍스트		기술적 그림텍스트		문자 및 숫자 기호	언어 기호	음악
	정지 영상	동영상	정지 영상	동영상			

<표 2-3> 텍스트의 구분

15) 김영순(2002), 「기호학으로 영상텍스트의 코드 읽기」, 철학 아카데미, 『기호학과 철학 그리고 예술』, 서울 :소명출판사, pp.219-220.

16) <표2-3>은 상계서, p.220.에 제시된 것과 같다.

그러나 김영순의 구분에서는 시각과 청각만 포함할 뿐 촉각, 후각, 미각 텍스트에 대한 구분은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이러한 구분의 사용이 영상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촉각의 경우에는 4D영화나 디지털 매체에서 사용되는 촉각 피드백¹⁷⁾(tactile feedback)기술 등이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가상현실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개발로 후각, 미각을 활용한 텍스트의 사용 기술도 앞으로 출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촉각, 후각, 미각텍스트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텍스트는 생산주체와 해석주체¹⁸⁾의 관계 속에서 정보의 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정보의 대상과 생산주체, 해석주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러한 요구조건이 충족되는 상황 속에서 완성된다. 텍스트란 외부적 형식보다는 담론, 즉 대상과 주체간의 관계에 의하여 의미의 구조가 연결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텍스트는 하나의 단어일 수도, 문장을 이루는 문자텍스트일 수도 있으며 문자이외의 다양한 기호로 쓰여 질 수도 있다. 텍스트의 생산주체와 대상 그리고 객체 사이에서 텍스트의 한계는 없으며, 생산주체의 의도에 의해 만들어지고 해석주체의 해석에 의해 완성기도 한다. 즉 텍스트는 생산주체의 언술이 기술된 형태로 생산주체의 의도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며 인간이 가지는 표현의 총체성이다. 이렇게 생산된 텍스트는 주체로부터 독립되어 해석주체와의 접촉으로 다양한 의미를 발생시키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1.2. 텍스트의 구조

텍스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응집성과 응결성이 요구되는데 응집성과

17) 촉각은 인간과 외부세계의 접촉에 의해 생기는 감각으로 터치스크린과 같이 컴퓨터나 로봇 등의 제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가상객체와의 정보 교류를 위해 촉감을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러한 기술은 휴대폰을 비롯한 IT, 통신과 네트워크 기반구조, 섬유 및 의류, 신발, 자동차, 기계, 조선, 로봇, 디자인, 여가 산업 등 여러 분야의 산업과 연계되어 활발하게 개발 연구되고 있다.

18)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이 아닌 이상 텍스트의 생산자는 생산자인 동시에 텍스트의 수용자이며 수용자 역시 수용자인 동시에 생산자로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생산자와 수용자의 역동적 관계는 인터넷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의 환경에서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이유에서 주체와 객체 또는 발신자와 수신자 등의 용어 대신 생산주체와 해석주체를 사용하며 주체는 이 둘을 동시에 이르는 말이다.

응결성은 모두 텍스트 내의 기호들의 연결에 관련된 것들이다. 즉 응집성은 기호들의 내용적 연결을, 응결성은 표현된 기호들의 연결에 관련된 것이다. 텍스트가 내용적, 표현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계열체(paradigm)와 통합체(syntagm)¹⁹⁾라는 기본적 요건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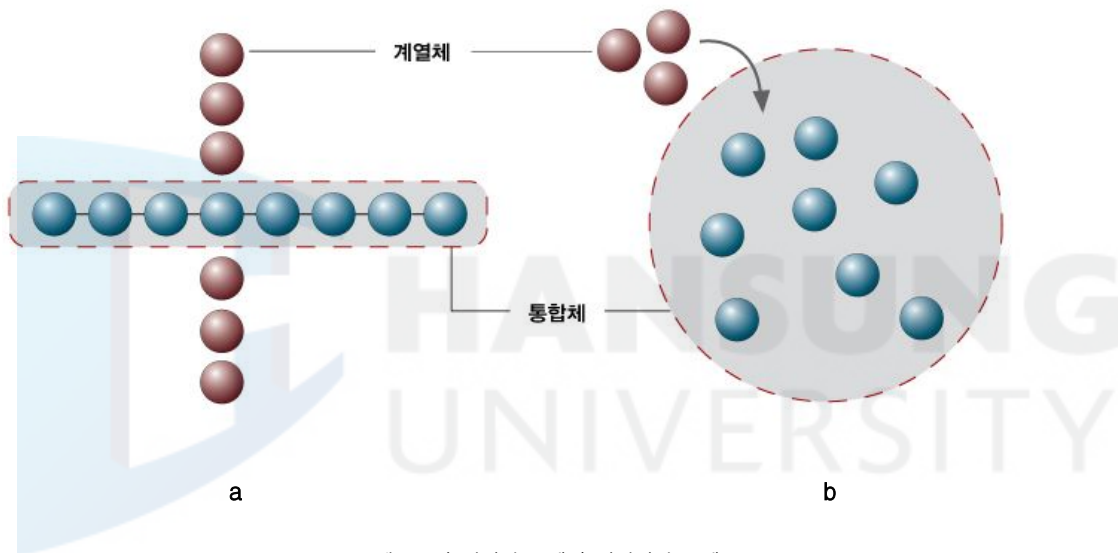
텍스트에서 각각의 기호에 해당되는 서로 교체될 수 있는 수직적 관계의 것들을 계열체라고 하는데, 계열체는 공통성을 가진 기호의 한 세트로서 기호 사용자가 기호의 복합체를 생산하기 위한 기호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이러한 계열체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공통성(commonality) 또는 구성원의 자격(membership)이며, 다른 하나는 계열체 속의 다른 것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uniqueness), 혹은 고유의 가치(value)이다²⁰⁾.

통합체는 나열된 기호들의 선형적 조합으로 연결된 수평적 관계로 텍스트를 시간의 흐름을 포함하는 하나의 기호체로 보는 방법이다. 통합체는 계열체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며 텍스트의 이야기(사건)·메시지가 관련된다. 즉 텍스트는 선택되어진 기호들(계열체)들이 조합(통합체)되어진 이야기임과 동시에 하나의 큰 기호체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형적 통합체로는 모든 종류의 텍스트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것은 문자 이외의 도상기호나 음성, 영상 등의 기호에 의해 만들어진 텍스트의 경우 선형적으로 구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융합미디어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텍스트는 자유로운 연결구조로 시간적 제한에서 벗어난 비선형적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텍스트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선형적 통합체보다는 자유로운 구조를 가진 기호들의 병치적 관

19) 소쉬르는 랑그(langue), 와 파롤(parole)을 구분한 뒤 이들을 각각 별개의 언어학의 대상으로 삼았다. 랑그는 언어활동의 사회적 부분으로 말하는 사람 개인이 반드시 따라야 할 '체계'이며, 파롤은 랑그가 개인에 따라 자유롭게 실현되는 '현상'이다.(김종우, 2009 :15) 그리고 기호에 관한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기호는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e)가 결합된 개념임을 밝히며 자의적 특성과 변별적 특성으로 언어의 구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의 언어를 설명하는데 공시대(共時態, synchronie)와 통시대(通時態, diachronie)를 구별하고 기호가 약호로 구성되는 방식을 계열체와 통합체란 두 유형으로 정의 내렸다.(존스피크, 2001 : 115) 공시대와 통시대는 언어를 연구하는 관점에 대한 것이며 계열체와 통합체는 언어기호의 구조에 관한 것이다.

20) 계열체의 두 가지 특성인 '공통성' 또는 '구성원의 자격'과 '고유의 특성', 혹은 '고유의 가치'는 김경용의 계열체에 대한 해설을 따른다. 자세한 내용은 김경용(1997),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p.96.

계로 구성된 모델이 필요하다. <표2-4>은 이러한 병치적 관계로 구성된 텍스트를 선형적 구조의 텍스트와 비교해 놓은 것이다. <표2-4> b에서 텍스트의 구성요소들은 생산주체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배치되며 이것은 직물의 구조보다 펠트(felt)²¹⁾의 구조에 가깝다. 그리고 해석주체는 생산된 텍스트를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의미를 연결시킨다. 즉 문자텍스트의 경우 내용과 기호의 표현은 문법적 연관성에 의한 선형적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문자 이외의 기호로 된 텍스트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해석의 과정에서 오는 선형적 구조를 가지나 표현적인 면에서는 선형적인 구조만을 고집할 수 없다. 그리고 해석을 위한 해석주체의 의미의 연결은 생산주체의 의도와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다.



<표2-4> 텍스트의 선형적 모델과 비선형적 모델

텍스트는 계열체에서 선택된 기호들이 연결된 통합적 구조이며 지층의 구조를 가진다. 테리다가 후설의 『순수현상학의 이념들 1』 (1913) 124절에 대한 주석 글을 살펴보면 후설은 텍스트를 3가지 층으로 구분하는데, ‘경

21) 양털이나 그 밖의 수모섬유(獸毛纖維)를 축융(縮絨)하여 시트 모양으로 한 것. 「펠트」, 『doopedia a』, <<http://www.doopedia.co.kr/doopedia/index.do>>, 2011/6/22.

험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인 표지층이 있고, 그 아래 선험적 차원인 표현층이 있다. 그리고 다시 그 아래에는 표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뜻 층(선-표현적 하위층)'이 있다.²²⁾ 즉 표지층은 텍스트의 표면에 나타나서 우리가 인식 가능한 물질적 차원의 층위이다. 표현층은 텍스트의 의미에 해당하는 층위이며 선-표현적 하위층은 텍스트의 의미 이전의 뜻, 다시 말해 주체의 인식 이전의 진실을 의미한다.

문자 텍스트는 음성 언어를 시각화한 것으로 의미와 표현 모두가 서술성을 가진다. 서술성은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며 텍스트에서는 선형적 형태로 표현된다. 그러나 지층구조의 텍스트에서 수직층의 관계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수평층의 연결 구조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되어 결국에는 수평구조가 해체될 수 있다.

2. 하이브리드의 개념

2.1. 이질적 요소의 결합

하이브리드(hybrid)는 고대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다. 성경에서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그리스 신화의 아킬레스, 페르세우스, 헤라클레스처럼 하이브리드는 신의 힘을 물려받은 반신반인으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월등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단군신화에서도 우

22) 김상환(2008), 「데리다의 텍스트」, 『철학사상 제27호』,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p.94. 데리다가 후설의 『순수현상학의 이념들 1』 (1913) 124절에 대한 주석 글을 첨부한다. 이 글은 김상환이 앞의 논문에서 J. Derrida, *Marges de la Philosophie*(Paris: Munuit, 1972), p.190-191.를 해석하여 인용한 글이다.

(...) 로고스의 층위는 경험의 '보다 일반적인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다. (...) 언어 안에서는 순수하게 언어적인 것과 경험을 이루는 여타의 섬유들이 서로 얽혀있고, 이 Verwebung(얽힘)은 하나의 직물(tissu)을 이루고 있다. 즉 '층위'들은 서로 '짜여'있고, 그 씨줄과 날줄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있다. 만일 로고스의 층위가 단순히 '정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걷어내고 그 밑에 자리 잡은 비표현적 행위와 내용의 층위가 나타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상층구조가 역으로 본질적이고도 결정적인 방식으로 하위층(Unterschicht)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지리학적 은유에 텍스트의 은유를 연계시키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직물은 '텍스트'를 말하기 때문이다. Verwebung는 여기서 textere를 의미한다.

리민족의 기원을 신과 곰-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하이브리드 인간으로 기록하고 있다. 생물학에서 하이브리드는 같은 속(屬)에 속하는 다른 종(種) 사이에게서 태어난 노새나 라이거, 타이곤과 같은 잡종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카메라 등 기술적 결합의 하이브리드가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모두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요소를 합친 것으로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에는 이질적 종의 결합이 항상 전제된다. 이러한 이질적 요소의 결합인 하이브리드는 두 개체의 다른 성질의 대립적 관계를 해소시키고 자연스러운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러한 원리는 이질적인 개체의 개별성을 유지한 채 하나로 결합시키는 특수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성질의 종을 탄생시킨다.

하이브리드는 이질적 개체들의 통일성을 지향하면서 다양성이나 다원성으로도 해석되는 독립적인 개별성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원리로 인간의 문화는 끊임없는 충돌과 교류로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켜 온 것이며 기술의 발전 역시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 진보해 온 것이다.

2.2. 우성적 요소의 진화

노새는 말(우)과 당나귀(송) 사이에 이루어진 대표적 하이브리드이다. 몸은 말을 꼬리와 울음소리는 당나귀를 닮았고 피부는 말보다 탄탄하고 덜 민감하여 태양이나 비에 보다 잘 견딜 수 있다. 발굽 또한 말보다 강하여 질병이나 곤충에 대한 저항력과 지구력이 강하고 참을성이 좋은 특성이 있다. 이외에도 하이브리드는 라이거(사자와 호랑이), 비팔로(소와 아메리카 들소), 메닭(닭과 메추리), 향붕어(잉어와 향어) 춘향목(소나무와 곰솔), 현사시나무(수원사시와 은백양) 등 다양한 동물들과 식물들이 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는 부모에 비해 자손의 크기나 성장속도 등이 강하게 되는데 이처럼 하이브리드가 우수한 형질을 가지는 현상을 잡종 생장력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종교잡에 의한 잡종 생장력은 생물의 생명력을 증가시키는 형태, 내성, 다산성 등이 뛰어나 생명의 진화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근친교배는 부모의 열성 유전자가

후손에게 대물림되어 자연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개체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하이브리드는 두 개체의 개별적 특성과 새로운 형질의 특성이 함께 공유되는 새로운 형질의 탄생으로 생물학에서 뿐만이 아닌 문화, 인류학, 기술, 과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에서 나타나는 잡종 생장력은 문화적, 기술적 우성의 특성을 가지며 일반적인 진화의 단계를 뛰어넘는다. 이러한 잡종 생장력은 하이브리드를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1+1'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즉 두 개체의 결합에서 하이브리드는 각 개체의 우성적 요소들과 더불어 새롭게 나타나는 특수한 형질을 포함한다.

하이브리드 결합은 $A+B$ 의 내용과 $A \times B$ 라는 새로운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며 이때 나타나는 $A \times B$ 는 잡종 생장력이라는 새롭게 생겨난 우성적 형질을 의미하게 되는 우성적 진화의 모습을 가진다.

2.3. 예측 불가능한 요소의 출현

하이브리드에서 우성적 요소의 진화는 잡종 생장력이라는 새로운 종의 성질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잡종 생장력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창발적 의미를 가진다. 모건과 알렉산더는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의 진화론을 수용하여 창발적 진화라는 개념을 주장하였다. 창발적 진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진화는 각 단계마다 그 전 단계를 기초로 이루어지며, 그 전 단계에 있었던 요인들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성질로 진화한다는 내용으로 진화를 새로움의 발현이란 점에 핵심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진화의 창발성이 일으키는 '새로움'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은 첫째, 단순히 기존 요소들의 재조합만이 아니고 둘째, 기존의 것과 양적·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셋째,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²³⁾ 이러한 창발적 진화에서 창발은 요소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속성으로 하위수준(구성요소)에는 없는 특성이거나 행동이 전체구조에서 자발적으로 출현하는 현상으로써, 하위수준의 구

23) 김은지, 전개논문, p.27.

성요소들로 인한 상위수준에서의 파급효과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자연과학 이론이다.²⁴⁾ 즉 창발성이란 1+1의 결과가 2가 아닌 그 이상의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원리로 그 결과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이브리드는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것으로 단순한 요소들 간의 결합이 아닌 새로운 원리로 해석되며 이러한 창발적 진화는 변증법적 사고의 통합적 진화가 아닌 새로운 탄생에 의한 진화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이브리드는 이질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예측 불가능한 요소의 출현으로 나타나는 우성적 요소의 진화이다. 이것은 통일성의 개념 안에 다양성과 다원성, 그리고 비결정적인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의도적 행위의 결과로 볼 수가 있으며 이는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한 자연스러운 것이다.

3.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규정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이질적 기호의 결합에 의한 텍스트이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이는 구술언어와 수화(手話)의 혼용이 그것이다. 수화는 청각 장애인이나 언어 장애인들이 구화(口話)를 대신하여 몸짓이나 손짓으로 표현하는 의사 전달 방법이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사용한다. 영상매체에서 사용되는 자막이나 화면 해설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 역시 복수의 기호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이다. 복수의 기호는 동일한 내용의 번역으로 볼 수가 있다. 즉 사용되는 두 기호는 상호 대체가능성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도 하며 별도의 의미로 보완적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다양성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유지하는 결합이다. 이는 유럽연합이 표방하는 다문화주의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

24) 이성록(2007), 『비영리 민간조직 갈등관리론』, 서울: 미디어 숲, p.326.

나라에서도 다문화 가정, 다문화 사회라는 용어들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 이처럼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일반텍스트의 범주를 넘어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고정된 통합이 아닌 해체와 합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비결정적 운동성에서 찾아낸다. 이로써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정체된 문화현상이 아닌 움직이는 진행형으로 현대사회의 다중 매체적 특성과 문화적 혼성현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연구자는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를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선형적 텍스트의 구조를 해체하며 비선형성, 비결정성, 다양성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상호 이질적인 관계의 기호나 텍스트가 결합된 형태로 개별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지향하는 이중성을 가진다.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표현의 모든 수단으로 우성적 진화의 결과이다.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이질적 두 요소의 결합은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표현의 방법과 해석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제 3 장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

1.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성 요소

1.1. 외부 구성 요소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외부 구성 요소는 대상, 생산주체와 해석주체, 그리고 거시적 맥락(macro-context)이 있다. 대상은 생산주체가 해석주체와 소통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이나 사건 등의 지각 가능한 물질적인 것과 의미나 내용 등의 비물질적인 것 모두를 포함한다.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생산주체는 생산주체인 동시에 해석주체이며 해석주체 역시 해석주체인 동시에 생산주체로서 고정된 주체와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하이브리드적인 특성의 텍스트’는 고정되지 않은 생산주체와 해석주체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완성된다.



<표3-1>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외부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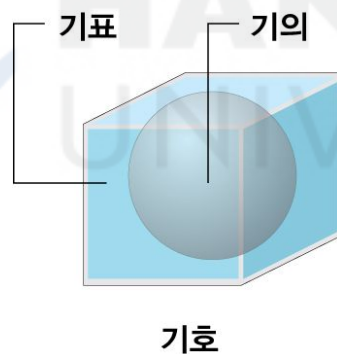
이러한 세 요소들 간의 고정되지 않는 역동적 관계는 거시적 맥락(macro-context)속에서 이루어진다. 거시적 맥락은 대상과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와 생산주체, 그리고 해석주체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요

인이다. 거시적 맥락은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 밖의 일로 의도성, 상황성²⁵⁾, 텍스트의 생산주체와 해석주체와의 관계, 해석주체의 성격 등 다양하게 설명될 수가 있다. 이러한 거시적 맥락은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에 가하는 외부적 영향으로 ‘하이브리드 특성의 텍스트’의 전반적인 해석과 이해의 변수로 작용한다.

1.2. 내부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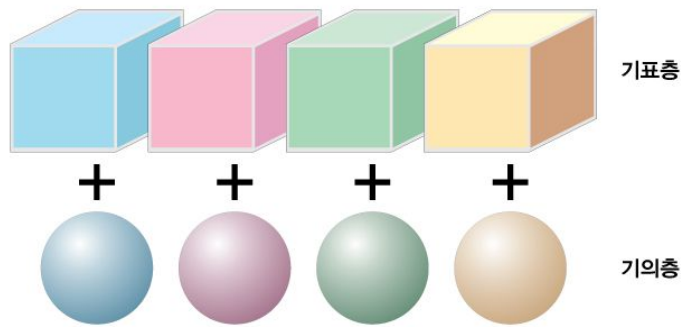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이질적인 두 개 이상의 기호체계가 결합되어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데 이때 결합되는 기호체계는 문자인 경우 단어일 수도 있으며 문장일 수도 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도 앞서 살펴 본 후설의 텍스트처럼 지층의 형태를 가지는데 일반적인 텍스트보다 복잡한 구조로 얹혀있다.

텍스트는 담론이 쓰인 형태로 단수의 기호에서 복수의 기호까지 다양하다. 기호학자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는 기호를 기표와 기의로 나누었는데 텍스트는 기호에 의한 복합체로 설명할 수가 있다.



<표3-2> 기호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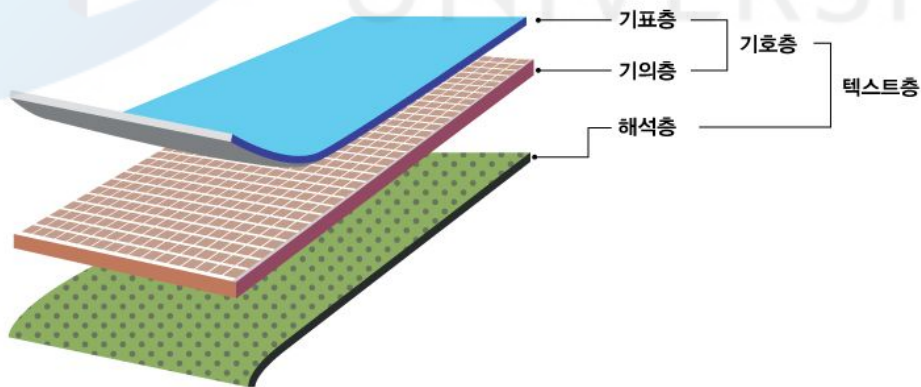
25) 보그란데와 드레슬러에 의하면 의도성은 텍스트 생산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텍스트를 생산하는가 하는 텍스트 생산자의 심리적 태도이며 상황성은 텍스트가 어떤 의사소통 상황에 관련되도록 해 주는 요인의 총체를 의미한다. Beaugrande, R.A.& Dressler, W.(1981), 김태욱·이현호 공역(2002), 『텍스트언어학 입문』, 서울: 한신문화사, p.100, p.243.



<표3-3>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를 위한 연구모델 1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도 기표들과 기의들이 결합된 기호의 결합으로 생산된 텍스트로 다양한 기표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표층과 그것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기의층의 이중적 결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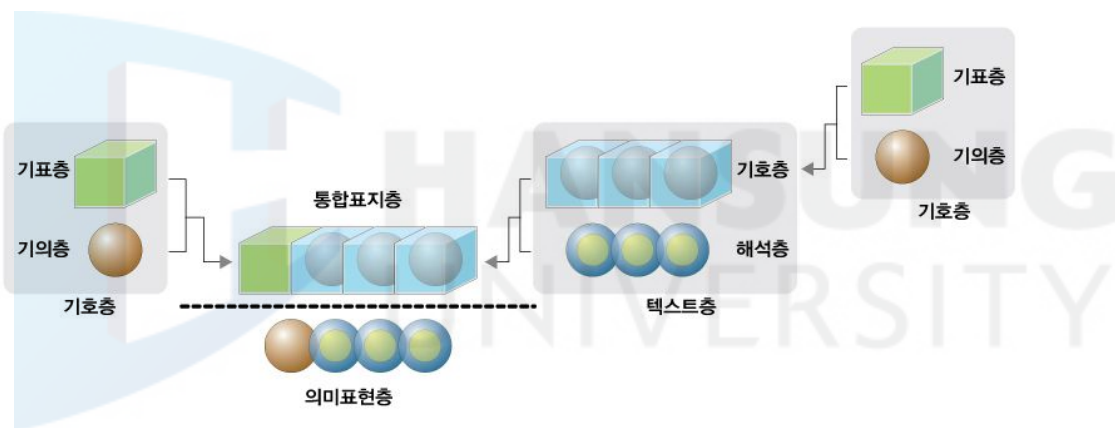
텍스트에서 기의들의 결합은 다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이를 텍스트의 해석층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구조주의학자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제시한 의미작용모델과 같다. 바르트는 기호를 1차기호, 즉 외시의미로 객관적 의미의 수준을 나타냈고, 1차기호의 표현과 내용이 합쳐져서 2차기호의 새로운 표현과 내용이 되어 주관적 의미의 수준 즉,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자의성의 차원으로 내포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²⁶⁾



<표3-4>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를 위한 연구모델 2

26) 박영원(2001), 『디자인기호학』, 청주: 청주대학교 출판부, p. 211.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표면상 이질적 기호들의 결합과 이질적 텍스트의 결합을 동시에 포함할 수 있다. 이때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층위는 좀 더 복잡해진다. 기호층은 결합되는 텍스트 층위와 수면을 같이 하게 되며 기의층 역시 텍스트의 해석층과 같은 층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서 해석층과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해석층과 차이를 두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층위를 ‘통합표지층’과 ‘의미표현층’으로 구분한다.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층위 구분은 연구자가 바르트의 의미작용이론과 후설(Edmund Husserl)의 지층에 비유한 텍스트에 대한 설명에서 표지층, 표현층, 선-표현적 하위층²⁷⁾을 참고한 것이며 선-표현적 하위층은 본 연구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를 지층의 구조로 시각화한 것이다. <표3-5>는 앞에서 살펴본 <표3-3>와 <표3-4>을 포함한다.



<표3-5>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를 위한 연구모델 3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문자 텍스트와는 달리 텍스트의 문법적 통일성과 의미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의 응결

27) 2장에서 살펴본 대로 표지층은 텍스트의 표면에 나타나는 인식 가능한 물질적 차원의 층위이고 표현층은 텍스트의 의미에 해당하는 층위이며 선-표현적 하위층은 텍스트의 인식 이전의 진실을 의미한다.

성과 응집성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것이 필요하다. 먼저 이들을 결합하기 위해 필요한 매체를 연구자는 ‘연결매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연결매체는 각각의 개체를 튼튼하게 연결시켜주는 중간 역할을 하며 필요에 따라 개체와 층위의 분리를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연결매체’는 하나에서 여러 종류의 것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연결 요소는 미시적 맥락(micro-context)이다. ‘하이브리드적인 특성의 텍스트’는 다양한 개체의 결합이기 때문에 단일 코드²⁸⁾로는 완전한 해석을 할 수 없다. ‘하이브리드 특성의 텍스트’를 생산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단일 코드가 아닌 복수의 코드가 필요한데 이러한 복수의 코드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에 의해 습득된 문법체계와는 다른 복잡하고 통합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활동은 기호와 기호 사이에 나타나는 의미의 유사성이나 문맥에 의한 연결성, 기호의 배치에서 나타나는 형태나 색감, 크기, 위치, 해석주체가 느끼는 감성적 측면에서부터 경험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요인은 텍스트의 생산주체와 해석주체 모두에게 적용된다. 해석주체의 인식의 결과는 의미가 교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근거로 한 잠정적 결정이며 주어진 텍스트에 대한 수동적 처리방식이 아닌 생산자나 수용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능동적 행위이다. 이러한 능동적 행위에 영향을 주어 해석주체의 인식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미시적 맥락(micro-context)이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 특성의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외부 구성 요소와 내부 구성 요소로 나뉜다. 외부적 요소는 대상과 고정되어지지 않는 생산주체와 해석주체 그리고 거시적 맥락으로 구성된다. 내부적 요소는 기표와 기의를 포함하는 기호층과 기호들이 결합된 텍스트층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구성은 다시 통합표지층과 의미표현층으로 통합 구성된다. 그리고 각 요소들을 연결하는 연결매체와 미시적 맥락을 포함한다.

28) 코드는 종종 의미작용과 동일하게 취급되기도 하나 여기에서는 해석을 위한 즉 방법, 경로, 지식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2.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결합 구조

2.1. 교환 가능한 이질적 요소들의 결합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이질적인 요소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데 결합되는 요소들은 계열체의 다른 요소들과 교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교환의 관계는 상호텍스트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것은 보그란테와 드레슬러가 제안한 텍스트성의 항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말처럼 ‘하나의 기호체계가 또 다른 기호체계로 이동하는 것’, 하나의 의미화 실천이 또 다른 의미화 실천으로 전위되는 방식²⁹⁾을 의미한다. 이것은 상호텍스트성이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통합표지층과 의미표현층 모두에 관계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를 두 개의 축, 즉 작가(생산주체)와 독자(해석주체)를 연계시키는 수평축과 텍스트를 그 이전의 다른 텍스트들과 연계시키는 수직적 축으로 나눈다. 이 두 축이 교차하는 공간 속에서 작가, 독자, 텍스트, 간텍스트³⁰⁾ 사이에 고정된 위치란 없으며, 그들 사이의 운동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것은 차연의 운동이다.³¹⁾

차연이란 ‘연기하다(différer)’, ‘미루다’의 시간적 의미와 ‘차이나다(différence)’, ‘다르다’의 공간적 의미를 포함하는 데리다가 제시한 용어로 시간화에 따른 지연과 공간화에 따른 차이를 의미한다. 기호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결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의미작용의 연쇄 속에서 하나의 대체 가능한 언어 해석으로부터 다른 해석으로 지연된다는 의미의 불확정성을 내포한다. 의미가 불확정하다는 것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하나의 절대적 원칙으로 결합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차이나다’와 ‘연기하다’의 결합에서처럼 언어의 개별적 특성을 유지하는 불확실한 중립상태이다. 이처럼 상

29) Noëlle McAfee, 이부순 옮김(2007), 『경계에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울: 엘피, p.60.

30) 간(間)텍스트란 상호텍스트와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며 인용문에서 사용된 간텍스트는 선택스트로부터 영향을 받은 후텍스트 즉, 선택스트와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교환되어 질 수 있는 텍스트를 의미한다.

31) 한국텍스트언어학회(2007), 전계서, p. 239.

호텍스트성에는 텍스트를 고정된 구조로 보는 것이 아닌 생산주체와 해석주체의 관계를 유기적 역동적 관계로 보는 해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즉 상호텍스트성은 생산주체와 해석주체의 자의적 맥락에 의한 의미화 과정의 일부이다.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의미화 과정은 언어학에서의 계열체로 설명될 수가 있다. 즉 텍스트에서의 서술적 공간(통합체)에 배치되는 계열체는 개인적 시간의 수직축으로 기호 사이에 상호 교체될 수 있는 관계이다. 기호는 이러한 계열체의 차이에서 그 의미를 갖게 된다. 다만 계열체가 기호의 단위에서의 의미를 구하는 차원이라면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 층위의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단어가 뜻하는 바와 같이 계열체는 선택될 수 있는 기호들의 집단을 뜻하고, 상호텍스트성은 서로 교환될 수 있는 성격을 뜻한다.

이때 각각의 기호들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매체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매체들 역시 서로 교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을 상호매체성이라 할 수 있다. 상호매체성은 서로 다른 매체에 대한 번역가능성이나 기법의 변화 그리고 전체의 실체를 위한 상호보완성으로도 이야기될 수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3-6>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생산과정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것은 자신의 사고를 상대방에게 동일하게 전달하는 것과 자연의 이미지를 왜곡하지 않고 전달하는 것 그리고 주체가 느끼는 감성적인 측면까지도 포함된다. 이렇게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계열체에서 적절한 기호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즉 코드화의 문제인 것이다. 문자텍스트에서의 코드화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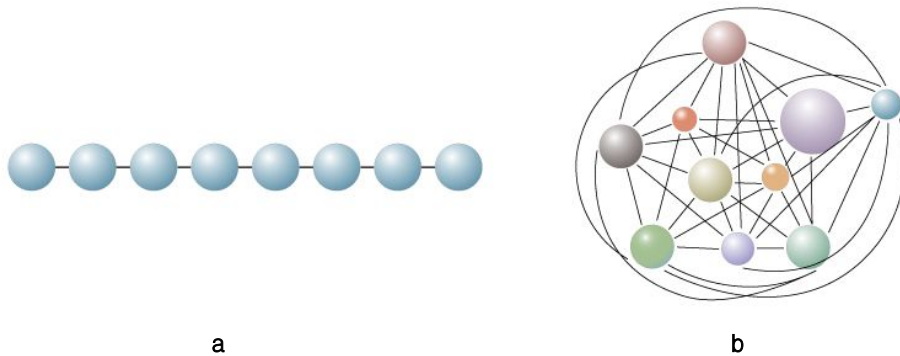
구술언어를 대신할 문자의 선택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기호의 범위가 매우 넓다. 이때 계열체에서 선택될 수 있는 기호를 동질적 매체라 할 수 있다. 동질적 매체는 게오르크 루카치에 의해 사용된 개념으로 문학에서는 언어, 음악에서는 소리, 조형예술에서는 시각성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매개물은 장르마다 질적으로 같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루카치는 후기 미학에서 이를 ‘동질적 매체’라고 불렀다.³²⁾ 루카치의 동질적 매체는 매우 주관적 차원의 것으로 그것은 대상에 대한 주체의 체험과 내적 인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동질적 매체 역시 소쉬르의 계열체, 크리스테바의 상호텍스트성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루카치는 반성적 표현으로써 계열체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동질적 매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기호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호텍스트성은 교환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의미하고 동질적 매체란 이러한 원리에 의해 교환되는 기호들을 말하는 것이다. 즉 상호텍스트성은 기호나 텍스트가 다른 기호나 텍스트로 교환되는 성격을, 동질적 매체는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교환될 수 있는 기호의 체계를 말한다.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생산주체가 의도하는 것을 표현하는 노력의 결과로 다양한 동질적 매체로 구성된다. 이때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에서 동질적 매체는 서로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교환되어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를 만들어내며 반대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다양한 해석으로 나타난다. 문자텍스트는 분절된 동질적 매체의 선형적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완성적, 서술적 형태인 반면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이질적 매체들이 호트리저 있으며 비선형적인 구조를 가진다.³³⁾ 또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동시적이며 통시적인 이중의 구조를 가지며 해석의 순서 역시 다양하여 하나의 구조로 결정할 수가 없기

32) 이주영(1998), 「루카치의 미술관」, 『문예미학 제 4호』, 문예미학회, p.185.

33) 일부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에서 문자텍스트 방식의 선형구조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는 문자 텍스트와의 대비를 위해서 선형구조의 하이브리드텍스트는 제외상황으로 두었다.

때문에 비선형적인 형식의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를 생산하거나 이해할 때에는 해석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표3-7> 문자 텍스트와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 비교

문자텍스트의 경우에는 <표3-7> a와 같이 선형적 구성으로 순차적 해석이 가능하지만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비선형적 구성으로 해석주체의 능동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즉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표3-7> b와 같이 역동적이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해석주체가 때에 따라 다르게 주관적으로 비선형적 구성 요소들을 연결시켜 해석을 해야 한다. 이처럼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교환 가능한 이질적 요소들의 결합으로 불완전한(incomplete) 구조를 가지며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생산주체의 의도성을 가진 하나의 통일체(incomplete-organization)이다.

2.2 우성적 진화를 위한 엇물림의 결합

개별성을 유지한 동질적 매체의 결합인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불완전한 통일체의 모습으로 생산주체의 관념을 전달하고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개별성과 통일성이라는 이중적 구조의 결합에 관한 내용은 양자역학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

양자역학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으로 알려진 코펜하겐 해석(Copenhagen Interpretation of Quantum Mechanics)³⁴⁾은 닐스 보어(Niels Henrik David Bohr)의 상보성³⁵⁾과 베르너 하이젠베르크(Werner Karl Heisenberg)의 불확정성 원리³⁶⁾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원리에 양자계의 대상체가 아닌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를 대입하여 설명할 수 있다.

김재영은 코펜하겐 해석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닐스 보어의 입장을 4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㉞ 양자역학은 관측자의 지식과 무관하게 객관적 실재를 기술하는 이론이 아니라, 오히려 관측자와 대상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는 이론으로써, 주어진 물리량의 측정값들의 확률분포로부터 다른 새로운 관측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장치일 뿐이다.

㉟ 실제적인 실험을 통한 관측 또는 측정과 무관하게 개별적인 물리량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을 비롯하여 모든 이론에서 측정의 관념이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근본적’이라 함은 이론적인 서술과 별개로 측정의 이론이 따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론적인 서술도 항상 실험실 내에서의 측정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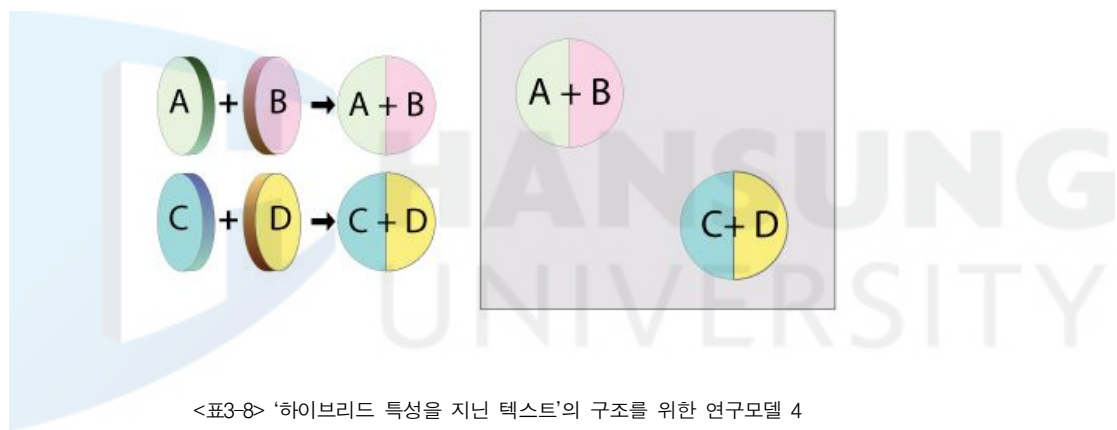
34) 코펜하겐 해석은 닐스 보어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등에 의한 해석으로 그 논의의 중심이었던 코펜하겐의 지명으로부터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이러한 코펜하겐 해석은 닐스 보어의 상보성 원리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5) N. H. D. 보어가 불확정성 원리에 의한 양자역학의 해석을 강조하기 위해 도입한 철학적 개념으로 한쪽을 정하면 나머지 한쪽이 부정되는 두 변수를 상보적이라 한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1996, 377.) 예를 들어, 양자의 운동은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위치와 운동량 모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때의 양자의 위치와 운동량과 같은 개념이 서로 상보적인 것이다.

36) 고전역학에 의하면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항상 동시 측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 물리량의 측정값이 불확정하다는 것은 측정기술이 불충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입장에서는 입자의 위치 x 와 운동량 p 는 동시에 확정된 값을 가질 수 없고, 쌍방의 불확정성에 의해 서로 제약되어, 입자의 위치를 정하려고 하면 운동량이 확정되지 않고,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하려 하면 위치가 불확정해진다. 이러한 견해는 1927년 하이젠베르크가 발견한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정식화되었다. 이 원리의 기본 골격은 입자성을 특징짓는 위치의 확정성과 파동성을 특징짓는 파장의 확정성은 서로 제약을 받고 입자성과 파동성이 서로 공존한다는 것이다. 「불확정성의 원리」, 『doopedia』, <<http://www.doopedia.co.kr/doopedia/index.do>>, 2011/6/22.

37) 김재영(2000), 「메타동역학의 열개와 성격: 양자론과 상대론의 동역학적 이론구조」,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85.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측정’이라는 단어로 이것은 물리량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측자와 ‘측정’에 관계된 상황의 변수에 따라 그 값이 달라 질 수 있는 것으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에 대한 주체의 해석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코펜하겐 해석에서 ‘모든 물리량은 관측 가능량으로서만 의미를 갖는다.’와 대응하는 것으로 고정되지 않은 의미로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상보성과 불확정성 원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상보성은 상호 이질적인 진술에 대하여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어떤 하나를 정의하기에 다른 하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상호보완적인 쌍으로써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형식이론은 주체나 대상 어느 한쪽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항상 함께 ‘지시’한다는 것³⁸⁾으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에서 이질적인 요소의 결합이 가지는 개별성과 통일성의 동시 지향적 구조를 설명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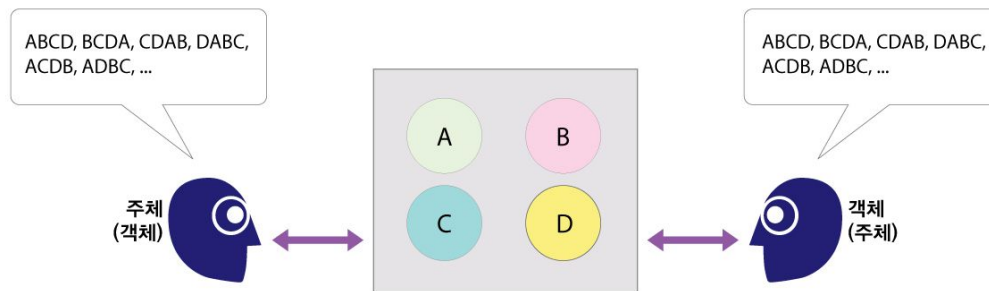
<표3-8>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를 위한 연구모델 4

<표3-8>에서 이질적인 A, B, C, D의 기호체계 즉 선택된 동질적 매체를 상보성으로 한 쌍을 이루게 하여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를 구성한다. 이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가 객체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는 표현의 가지 수는 4가지이다. 그러나 표현되는 동질적 매체의 구성은 2가지 즉 전체의 50%뿐이며 동질적 매체 4가지를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

38) 김재영(2000), 전계논문, p.86.

는 총 3회의 관찰이 필요하다. 즉 원하는 만큼의 정보를 모두 출력할 수가 없다.

<표3-9>는 A, B, C, D의 동질적 매체가 모두 나타나는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모습이다. 이와 같은 비선형적 구성에서 객체는 A, B, C, D의 순서를 자유롭게 결정하여 해석하고 텍스트를 이해한다.



<표3-9> 주체와 객체에 의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해석

즉 상보성과 불확정성의 원리로는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의미화 과정 즉, 해석층과 주체와 객체와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만 구조화된 모델을 제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는 양자역학의 대안적 해석인 머민(N. David. Mermin)의 이타카 해석(Ithaca Interpretation of Quantum Mechanics)³⁹⁾에서 제시한 ‘엇물림’을 차용하였다.

머민의 이타카 해석은 양자역학에 대한 대안적 시각으로 아직 정론화된 이론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객관적 확률에 대한 견해는 상보성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론에 대한 구체적 해석의 내용이 아닌 그가 제시한 ‘엇물림’이란 용어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를 설명하고자 한다.

39) N. David Mermin(1998), “The Ithaca interpretation of quantum mechanics”, *Pramana Volume 51, No. 5*, Indian Academy of Sciences, pp.549-565.

머민의 ‘엇물림’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부분계로 구성된 복합계에서 국한되어 정의된 물리량들의 텐서곱에 대한 기댓값(평균)으로 주어지는 ‘동시확률의 분포’로 정의된다.⁴⁰⁾ 또 이 ‘엇물림’들은 전체 대상계의 관측 가능량들의 확률분포로 결정하므로, 개별계에 대하여 근본적이고 환원되지 않은 객관적 성질들은 ‘객관적 확률’(objective probability)⁴¹⁾이다.⁴²⁾

상보적 관계의 한 쌍이 동시에 관찰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표3-8>에서와 같이 양분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둘의 결합은 중첩된 혼합 상태로 개별성과 통일성, 그리고 동시성 모두를 충족시켜야 한다. 다음은 이 둘의 결합을 엇물림을 이용하여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다.



<표3-10>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를 위한 연구모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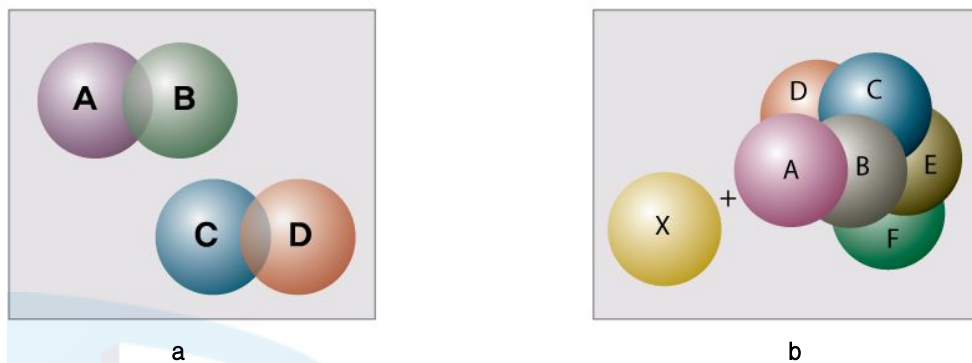
이질적 기호 A, B와 C, D는 결합을 하는데 있어서 상보적 형태가 아닌 엇물림의 구조로 상호간의 공통부분을 가진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면 두 기호의 결합은 A의 특성과 B의 특성, 그리고 A+B의 특성과 두 기호의 결합으로 생겨난 전혀 새로운 장르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기호 사이의 병치혼합(juxtapositional mixture)으로 개별성과 통일성을 모두 유지하면서 새로운 특성을 표출시키는 하이브리드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

40) 김재영(2000), 전계논문, p.98.

41) 객관적 확률이란 A를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말하며 주관적 확률이란 수학적 확률이 아닌 관찰자의 지식이나 이해관계가 연결되어있는 심리적 믿음의 정도에 관한 주관적 서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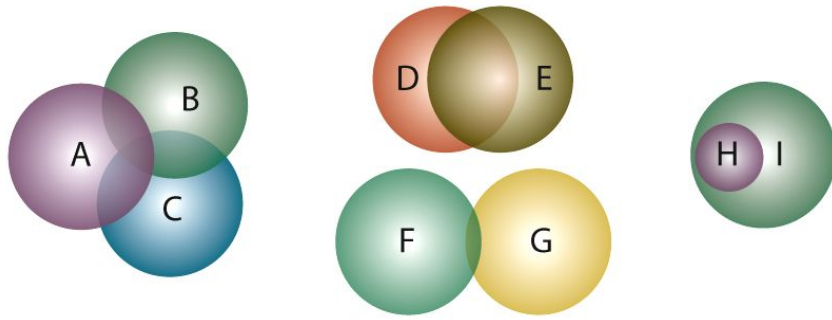
42) 김재영(2000), 전계논문, p.104.

은 하이브리드 개념에서 살펴본 우성적 진화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A \cap B$ 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성질은 A와 B의 우성적 특성이 결합되어 잡종 생장력을 가진 우성적 진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표3-10>의 a와 b는 이러한 관계를 나타낸 것이며 특히 b의 혼합부분에서 나타나는 흰 공간은 연결매체와 맥락의 두 축매로 채워져 두 동질적 매체의 결합이 색채의 혼합에서 보이는 단순한 혼합현상이 아님을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의 표현을 위해 본 연구에서 ‘화학적 병치혼합’으로 표시한다.)



<표3-11>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를 위한 연구모델 6

이질적 기호의 결합을 엷물림의 결합에 의한 화학적 병치혼합으로 규정했을 때 <표3-11> a에서 살펴보면 <표3-8>와는 다르게 동질적 매체 A, B, C, D모두를 확인할 수가 있다. <표-11> b는 여러 기호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모습이다. 이때 기호들은 둘 이상의 엷물림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 모델은 다양한 모습으로 결합이 가능하며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외적 내적 구조를 모두 충족시킨다. <표-12>는 이러한 엷물림의 결합에 의한 다양한 모습이다.



<표3-12> 기호들의 결합

2. 3.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의 자유로운 결합

정보는 그 목적에 따라 의미와 가치를 지니며 생산주체와 해석주체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정보는 데이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조직화하고 변화시킨 것으로 형태와 형식을 지니고 있다.⁴³⁾ 데이터는 재료·자료·논거(論據)라는 뜻인 datum의 복수형으로 정보나 어떠한 결론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뜻한다. 즉 데이터는 연구, 제작, 수집, 발견 등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일종의 원자재에 해당하며 이를 가공, 조작하여 정보를 만든다. 이때 데이터는 불완전하고 무질서한 상태로 존재하며 생산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되어 구조화된다. 즉 무질서 상태의 수집된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것을 정보라 할 수 있으며 정보는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송신자(생산주체)와 수신자(해석주체)가 있어 상대적으로 존재한다.⁴⁴⁾ 정보는 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송신자와 수신자를 오가는 역동적 상태로 지속적으로 구조화되고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은 질서를 불러일으킨다는 의미이다.

엔트로피⁴⁵⁾는 어떤 사건의 발생 확률과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정보

43) 오병근, 강성중(2008), 전계서, pp.19-22.

44) 오병근, 강성중(2008), 전계서, p.23.

45) 열역학 법칙 즉,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총화는 일정하며 그것이 소멸되거나 새로이 생

와는 반비례한다. 즉 정보는 확률이 낮을 때 증가하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낮을수록 좀 더 많은 정보가 발생한다.⁴⁶⁾ 정리를 하면 생산주체는 자연에 나타난 혼돈상태의 사실들을 수집하여 데이터화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은 구조화되지 않은 무질서의 상태로 존재한다. 생산주체는 무질서 상태의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질서화(정보)하여 송신한다. 해석주체는 전달받은 정보의 구조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읽어내며, 이때 데이터들은 개별적 사실들을 포함한 독립된 인자이며 서로 결합되어 의미화 되는 확률은 인자들이 결합되는 경우의 수와 비례한다. 의미화 확률의 증가는 해석의 다양성으로 나타난다.

무질서 상태에서 생산주체에 의해 선택된 데이터의 결합은 비결정성을 가지는데 비결정성이란 높은 수치의 확률이다. 이렇게 선택되어 결합된 정보는 해석주체에게 전달되고 의미화 된다. 개별적 요소들의 다양한 결합의 확률을 지닌 정보의 생산과정은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생산과정과 동일하게 선택적 요소들의 결합으로 하나의 단위로 융합되는 과정이다.

정보의 생성에 있어서 융합은 화학적 과정으로 촉매가 필요하다. 촉매는 데이터의 환경과 관계될 뿐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왜 소통해야 하는지, 어떻게 배열되는지, 이해하는 사람의 태도와 환경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보는 사용의 주체나 상황에 따라 의미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가 생산되고 사용되는 콘텍스트(맥락, context)가 중요하다.⁴⁷⁾ 촉매로서의 맥락(context)은 이렇게 각 객체들의 결합을 용이하게 해주며 개별성을 유지시키는데 이 역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성 요소인 맥락과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정보의 생산과정은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생산과정과 동일하며 같은 원리에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에서 동질적 매체의 선택과정은

성되지 않으며 형태는 변할 수 있으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엔트로피가 증가(에너지의 저급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개념에서 무질서의 정도에 관한 양적인 척도로 규정된다. 그리고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에 의하면 무질서는 “모든 질서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결합되지 못한 질서들의 충돌”로 혼돈이 아닌 질서의 무수한 가능성을 지닌 상태인 것이다.

46) Rudolf Arnheim, 정용도 옮김(1995), 『예술과 엔트로피』 서울: 눈빛, p.23.

47) 오병근, 강성중(2008), 전계서, p.22.

결국 무질서 상태의 기호들을 구조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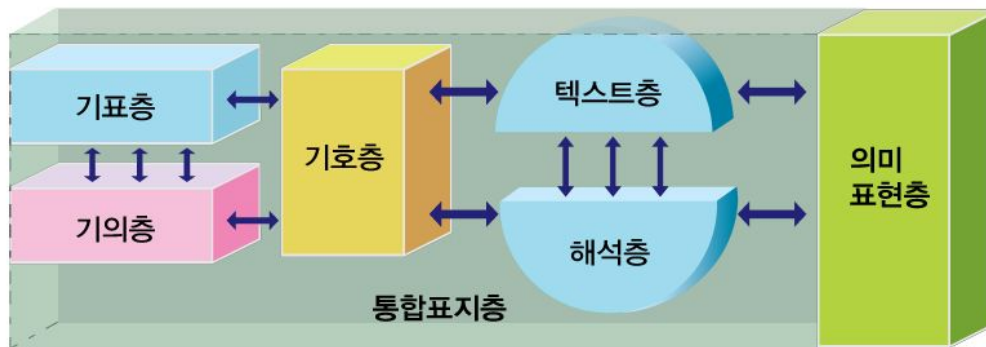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해석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의 생산은 정보해석의 확률 증가로 정보의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정보의 불확실성은 무질서의 증가 즉, 엔트로피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전달되는 정보량의 증가에 따른 객체의 선택의 자유가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립항들을 <표3-12>로 나타냈다.

순엔트로피	반엔트로피
무질서	질서
정보의 증가	정보의 감소
불확실성	확실성
확률의 증가	확률의 감소
다양성	통일성
운동	정지
자유	억압

<표3-13>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해석과정에서 나타나는 대립항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해석은 전통적 문자텍스트의 해석규칙을 따르지 않으며 해석주체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해 맥락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한다. 문자텍스트와 음성, 청각텍스트는 시간의 흐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자극의 순서나 해석주체의 자의적 선택에 의해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내의 동질적 매체의 기의층과 해석층의 고정된 결합은 있을 수 없으며 생산주체와 해석주체의 자율적인 의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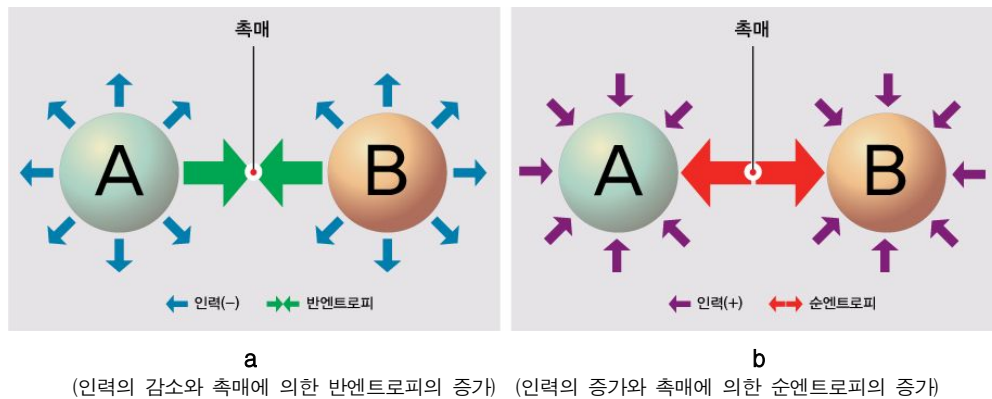
따라 변화하는, 고정되지 않은 결합의 구조이다.



<표3-14>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를 위한 연구모델 7

이러한 고정되지 않은 결합구조는 언제든지 해석주체에 의해서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어서 현대 예술이나 광고에서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의도적으로 느슨하게 하여 소비자의 적극적인 해석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것을 인력의 관계로 살펴보면 동질적 매체는 의미의 유사성에 의해 서로 결합하고자 하는 인력을 가지게 된다. 이때 동질적 매체 사이에 인력이 증가하게 되면 이러한 연결 관계를 조절해주는 촉매(연결매체, 맥락)가 엔트로피를 증가시켜 인력을 감소시킨다. 또 반대로 동질적 매체 사이에 인력이 감소되면 촉매는 반엔트로피를 증가시킨다. 즉 인력은 동질적 매체의 결합을 강화시킴으로써 엔트로피의 증가에 의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준다. 물론 촉매의 작용은 촉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생산주체 또는 해석주체의 자의적 해석의 과정에서 작동하게 된다. 즉 생산주체는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촉매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으며, 해석주체는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에 포함된 촉매를 적절하게 추출해 내어 동질적 표현매체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 텍스트를 완성시킨다. 즉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에서 각 요소들의 관계는 해석주체

에 의해 잠정적으로 결성된 상태이며 이러한 관계는 생산주체와 해석주체 그리고 촉매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자유로운 결합의 구조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합의 과정을 가질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가진다.



<그림 15> 인력과 엔트로피의 관계 모델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문학, 디자인, 예술 등의 다양한 장르에서 해석주체의 직접적 참여와 해석을 유도하며 문자텍스트와는 다른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무질서에 의한 불확실성과 정보를 생산하는 양자적 성격을 가지고 역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는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예측할 수 없는 자유로운 표현과 해석을 발생시키는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준다.

2. 4. 매체와 내용의 유동적 결합

파레르곤⁴⁸⁾은 일반적으로 에르곤의 밖에 있는 것으로 작품에 해당하는

48) 파레르곤은 칸트의 『판단력 비판(Kritik der Urteilkraft)』에서 ‘장식’을 뜻하는 희랍어로 ‘표상되

에르곤의 한 옆에서 작품에 반(反)하여 작용하는 부수적이고, 이질적이고, 이차적인 물건, 또는 장식 등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데리다는 이러한 논리를 반박하며 대상에서의 에르곤과 파레르곤 즉 안과 밖, 본질과 비본질의 경계를 허물어뜨린다.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에 있어서 내용을 에르곤 그리고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에 해당되는 파레르곤의 경계가 구별될 수 없으며 매체 자체도 텍스트의 한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 층위의 구조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텍스트를 형성하게 된다. 매체 역시도 하나의 기호로 작용하게 되며 그 의미가 다른 텍스트의 해석층과 결합되어 의미표현층을 구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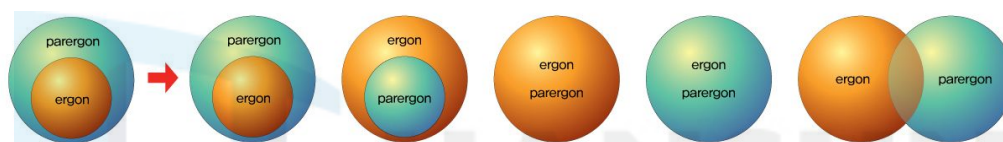
과거 문자텍스트는 단일 매체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현대에는 다양한 기호와 텍스트가 결합되어진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에서 기호들은 각기 다른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매체를 수반하고 표현 매체들의 결합을 위한 또 다른 매체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에 대한 논의에 있어 매체를 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전기통신의 발달 이전의 커뮤니케이션은 직접 또는 문자텍스트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기 위한 매체는 평면 또는 음성 등의 단일채널 매체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매체는 필연적으로 텍스트 밖에 존재하게 되는 파레르곤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디지털 매체는 과거 에르곤과 파레르곤의 관계를 해체하고 재정립한다. 인터넷 사이트에 기재된 텍스트들은 미디어 플레이나 플래시로 제작된 동영상에서부터 전통적 문자텍스트, 다양한 상징기호, 도상텍스트 등이 다양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어디까지가 파레르곤이며 어디까지가 에르곤인지 불분명하다. 즉 모니터를 통해 보이는 쿼타임 플레이어 그리고 그 안에서 재생되어지는 플래시 파일 그리고 그 안에 다른 텍스트들과 같이 다중 액자방식의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파레르곤이 곧 에르곤이며 에르곤은 또 다시 파레르곤으로 교차된다. 그리고 증강현실⁴⁹⁾(增強現實, augmented

는 대상의 표상 전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내재적 혹은 본질적인 요소는 될 수 없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여분으로, 첨가·부착된 보충으로 외재적인 방법으로 표상에 속한다.’ Jacques Derrida, 김보현 번역(1996), 『해체』, 서울: 문예출판사, p.447.

reality)의 출현은 이러한 파레르곤의 틀을 완전하게 붕괴시킨다. 과거 가상공간을 만들어내던 매체가 이제는 현실 속에서 이미지를 재현해 수용자의 감각을 혼란시킨다. 즉 현실이 가상의 이미지를 나타나게 하는 거대한 액자이자 스스로가 융합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인 것이다. 이러한 매체에 의한 유기적 결합은 시각 중심의 텍스트를 벗어난 새로운 텍스트로써 인간의 감각사용을 극대화하고 확장시킨다.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매체와 내용과의 관계는 전통적 액자방식의 결합만이 아닌 유동적 결합으로 다양한 종류의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가 생산된다.<표3-16> 즉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에서 매체(파레르곤)와 내용(에르곤)의 결합은 고정된 종속적 관계가 아닌 유동적인 협력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가 생산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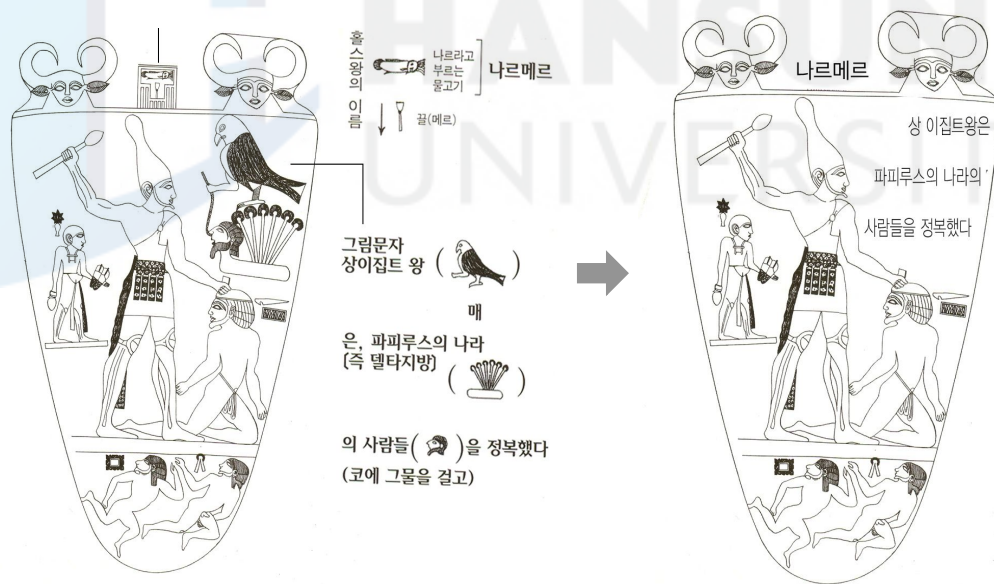
<표3-16>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에서 에르곤 과 파레르곤의 결합

49) 현실에 3차원 가상영상을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로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융합하는 복합형 가상 현실 시스템(Hybrid VR system)으로 혼합현실(Mixed Reality, MR)이라고도 한다.

제 4 장 사례를 통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 구조 분석

본 장에서는 앞에서 다룬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를 사례를 통해 검증하기 위해 각 사례들의 내부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연구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 항목인 교환 가능한 이질적 요소의 결합, 우성적 진화를 위한 엇물림의 결합,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의 자유로운 결합 측면에서 구조를 파악한 후 매체와 내용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 다룬 사례는 연구의 내용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에 나타나는 요소들을 구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다.

1. 시각텍스트와 시각텍스트의 결합 1-이집트의 ‘나르메르 화장판’



<그표4-1> ‘나르메르 화장판’에서 그림문자로 된 텍스트의 해석

‘나르메르(Narmer) 화장관’은 이집트의 강한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바르는 ‘아이 메이크업’을 만드는데 쓰인 작은 석판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웅적인 왕의 모습과 이름이 화려하게 새겨져 있다. 나르메르 왕의 승전을 기록한 ‘하이브리드 특성을 가진 텍스트’는 문자텍스트와 그림텍스트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왕을 거인 같이 크게 그리고 종을 아이같이 작게 그린 것은 왕의 신분과 권위를 크게 돋보이게 하는 고대 양식인 ‘하이어라키(Hierarchy)⁵⁰⁾’ 미술의 특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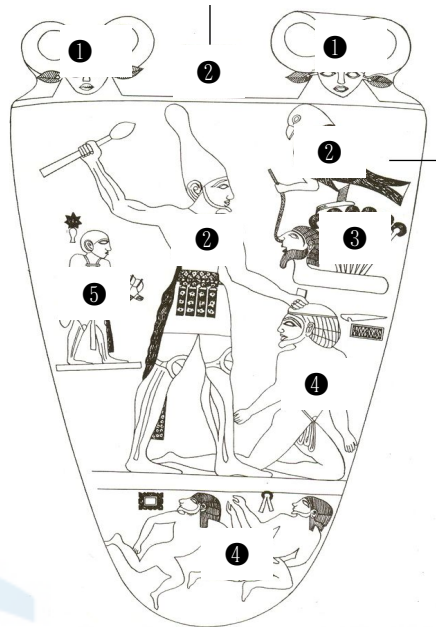
통합표지층	문자텍스트, 그림텍스트
의미표현층	하토르여신의 보호를 받는 나르메르는 철봉을 휘두르며 파피루스(하이집트)의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였다.(정복하였다.) 그리고 그의 시종이 소금잔을 들고 그의 뒤를 따른다.
연결매체	화장관
중요 맥락	하이어라키 미술과 이집트문화의 이해

구조 1. 교환 가능한 이질적 요소의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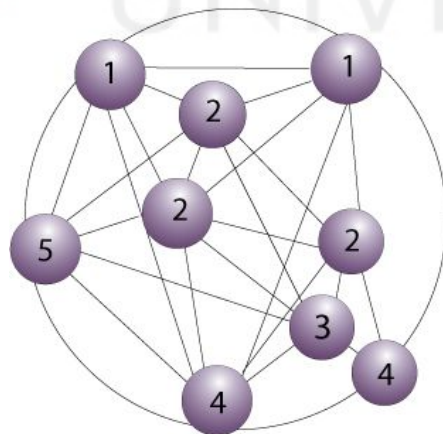
‘나르메르 화장관’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의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로 상형문자의 해독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쉽게 해석이 가능하다. 화장관의 해석의 순서를 살펴보면 ①①②②②③④④⑤의 순으로 진행되나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나르메르 화장관’은 문자텍스트(선형성)와는

50) 위계(位階)·계통(階統) 등으로 번역되는 조직·집단질서, 개인에 있어서의 권력적·신분적·기능적 상하, 서열관계가 정돈된 피라미드형의 체계를 뜻하는 말이다.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해석의 순서(번호의 순서)는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표 4-2>과 <표 4-3>에 나타난 번호는 상호 교환 가능한 계열체로 생산주체가 선택한 동질적 매체들이다.



<표 4-2> '나르메르 화장판'의 해석 순서



<표 4-3> '나르메르 화장판'의 구조 1

구조 2. 우성적 진화를 위한 엇물림의 결합

‘나르메르 회징판’에서 문자텍스트와 그림텍스트는 상호 보완하여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즉 문자텍스트는 왕의 이름, 업적을 서술하고 있으며 그림텍스트는 상황의 설명으로 공간성의 보충이다. 그리고 문자텍스트와 그림텍스트는 전체적인 정황 즉 맥락에 의한 추측으로 둘의 관계가 연결된다. 연결된 문자텍스트와 그림텍스트의 결합은 엇물림의 구조로 이해되며 이에 따른 화학적 병치혼합은 두 이질적 체계가 가지는 시간성과 공간성의 특성을 결합시켜 진화된 새로운 형식의 텍스트로 내용을 전달한다.



<표 4-4> ‘나르메르 화장판’의 구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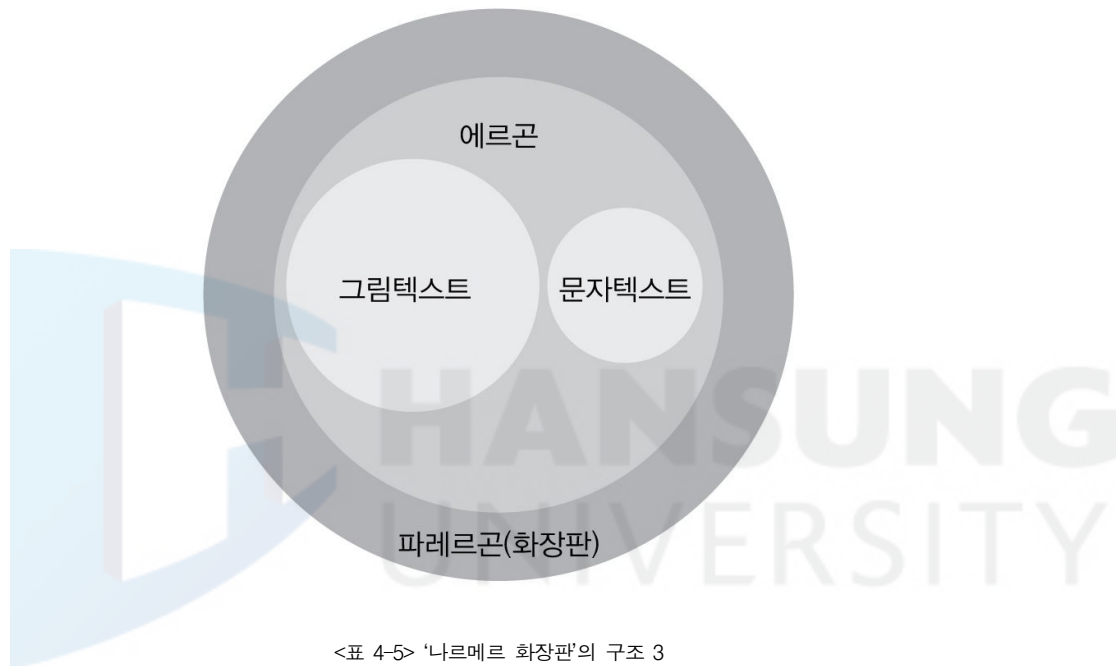
구조 3.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의 자유로운 결합

생산주체에 의해 선택되어 ‘나르메르 화장판’ 위에 구성된 동질적 매체들은 생산주체의 해석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나 완성된 텍스트는 선형적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주체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요소들의 연결로 생산주체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즉 생산주체와 해석주체가

가지는 의미는 일치할 수도 불일치할 수도 있는 다양한 해석의 확률을 가지며 이러한 해석의 내용은 예측이 불가능한 새로운 의미를 탄생시킬 수가 있다. 이때 해석주체는 새로운 텍스트의 생산자로 위치하게 된다.

구조 4. 매체와 내용의 유동적 결합

‘나르메르 화장관’에 기록된 ‘하이브리드 특성을 가진 텍스트’는 파레르곤 안에 에르곤이 들어있는 전형적인 액자 구조이다.



<표 4-5> ‘나르메르 화장관’의 구조 3

2. 시각텍스트와 시각텍스트의 결합 2-르네 마그리트의 ‘꿈의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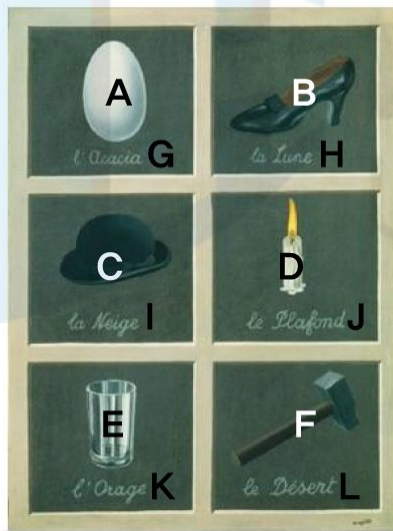


<그림 4-1> ‘꿈의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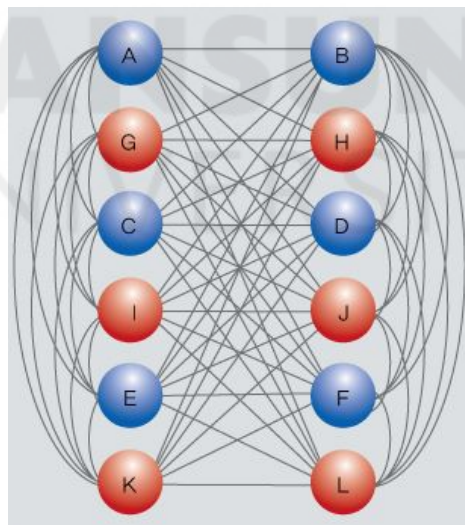
마그리트(René Magritte)의 ‘꿈의 열쇠(La clef des songes)’에는 각기 다른 그림텍스트와 6개의 문자텍스트가 6개의 액자 안에 들어있으며 이러한 6개의 액자가 다시 하나로 통합된 액자 속에 제시되어 있는 문자텍스트와 그림텍스트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이다. 그러나 재현된 이미지와 그 밑에 쓰인 단어는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성은 문자텍스트와 그림텍스트의 연결성을 모호하게 하여 다양한 연결의 시도를 하게하며 해석주체로 하여 다양한 해석을 이끌어내게 한다.

통합표지층	문자텍스트, 그림텍스트
의미표현층	계란, 아카시아, 검은 여성구두, 달, 중절모, 눈(雪), 촛불, 천장, 유리컵, 폭풍, 망치, 사막에 의한 해석주 체의 의미작용의 결과
연결매체	캔버스
중요 맥락	근접한 문자텍스트와 그림텍스트의 배치와 회화에 대한 사전 지식 불어에 대한 지식 해석주체의 경험과 자의식

구조 1. 교환 가능한 이질적 요소의 결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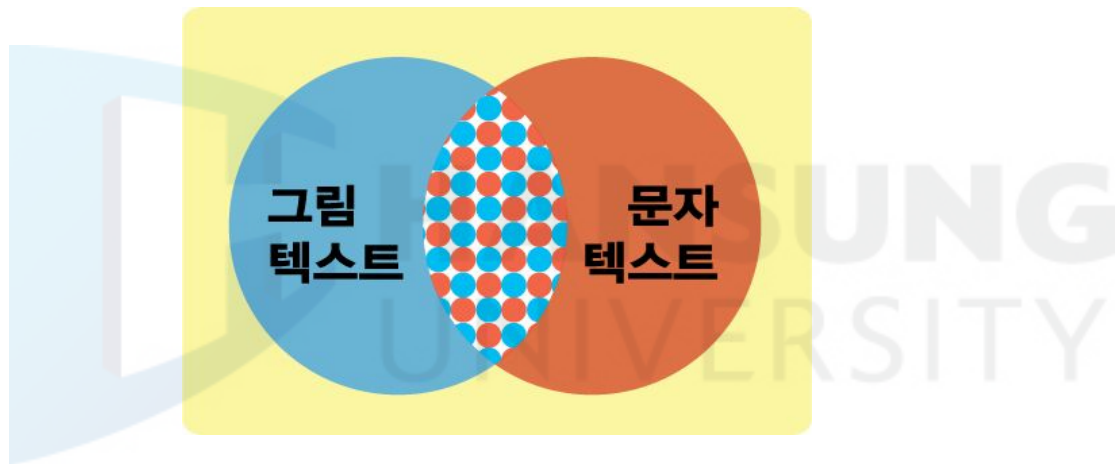
<표 4-6> '꿈의 열쇠'의 구조 1



<표 4-7> '꿈의 열쇠'의 구조 2



생산주체의 선택에 의해 배치된 동질적 표현매체는 문자텍스트(G, H, I, J, K, L)과 그림텍스트(A, B, C, D, E, F)인데 각각의 동질적 매체들은 어떠한 의미의 유사성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동일한 6개의 액자 구조 사이에서 상호텍스트성만을 발견할 수가 있다. 즉 6개의 액자들은 서로 교환되어 배치될 수 있는 상호텍스트성을 가진 관계이며 문자텍스트와 그림텍스트의 상호 이질적인 12개의 기호는 응집성과 응결성이 해체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로 액자방식의 통일성과 반복 그리고 조형성에 의한 레이아웃이 텍스트의 문법적 응결성을 대신한다. 그리고 해체된 응집성은<표4-7>처럼 의미작용의 과정에서 자유롭게 연결되어 해석주체마다 다른 내용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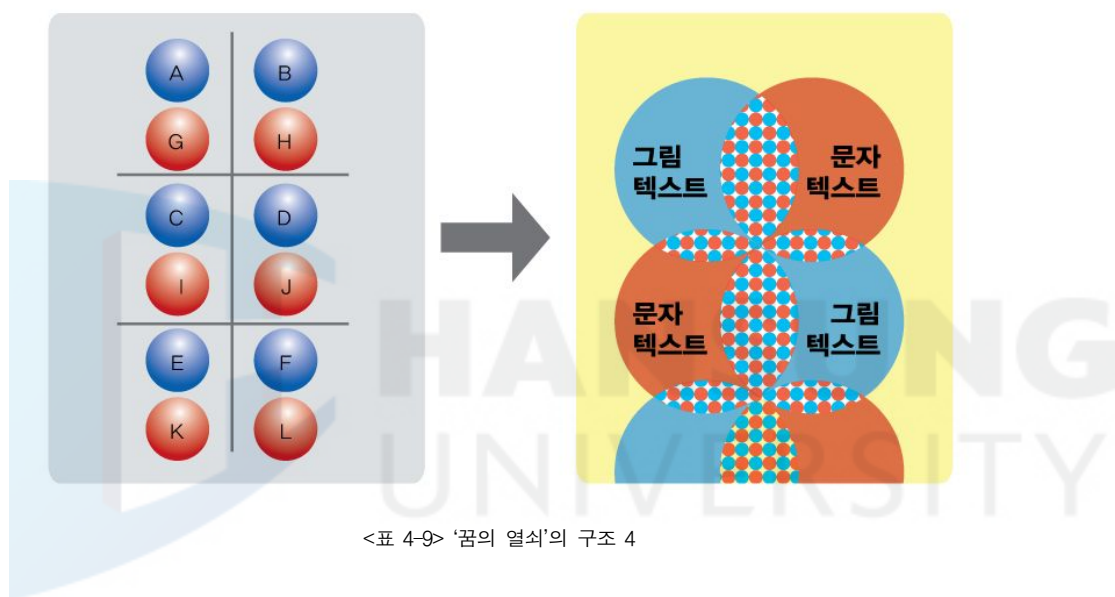
구조 2. 우성적 진화를 위한 엇물림의 구조



<표 4-8> ‘꿈의 열쇠’의 구조 3

문자텍스트와 그림텍스트의 결합은 일치된 관계가 아닌 이질적 의미를 가진 결합으로 동일한 의미의 결합에 비해 해석주체는 의미의 불일치에서 오는 당혹감과 불안감 등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도 각 단어와 그림텍스트 사이의 유사성과 응집성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문자텍스트와 그림텍스트가 서로 결합되고 동시에 두 개의 의미

가 해석주체에게 전달되어 새로운 의미의 텍스트가 완성된다. 부분적인 예로 ‘’와 ‘la lune(달)’의 결합은 단순한 ‘’와 ‘la lune(달)’의 의미만이 아닌 해석주체에 의해 새롭게 완성되는 의미로서의 텍스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텍스트는 <표4-8>에서 가운데 부분에 해당되는 엇물림의 결합에 의한 화학적 병치혼합 영역이다. 엇물림에 의한 결합은 6개의 그림텍스트와 6개의 문자텍스트로 이어진다.<표4-9> 즉 문자텍스트와 그림텍스트의 결합은 그림텍스트와 문자텍스트가 가지는 의미의 전달과 더불어 의미의 불일치에 의한 결합에서 오는 신선한 충격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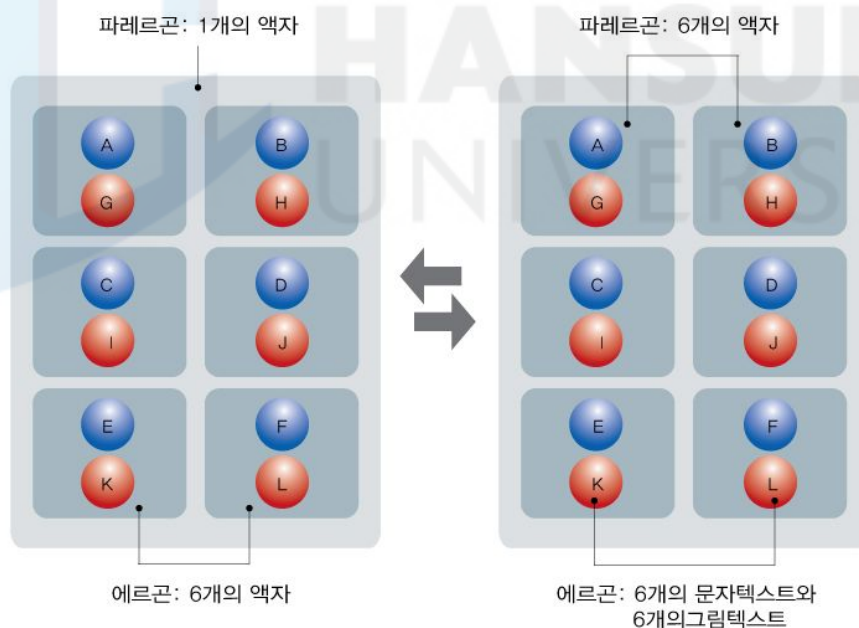
구조 3.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의 자유로운 결합

‘꿈의 열쇠’는 예술텍스트로서 정확한 의미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즉 의미에 대한 해석은 전적으로 해석주체의 몫인 것이다. 해석주체는 6개의 문자텍스트와 6개의 그림텍스트를 독립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연결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동질적 매체 사이에서 느슨해진 인력을 회

복하려고 하는 해석주체의 의지이다. 이로써 해석주체는 마치 스무고개를 하듯이 요소들의 의미를 연결시키며 해석을 한다. 그림텍스트의 제목에서 처럼 ‘꿈’의 이미지인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들이 ‘열쇠’가 되어 의미의 연속성을 해석주체가 능동적으로 주입하여 개인적인 의미의 텍스트를 완성시킨다. 텍스트를 완성시키는데 있어서 기호들의 연결 순서는 자의적으로 결정된다. 자의적 연결은 비결정적이며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말처럼 1+1의 원리가 아닌 새로운 의미가 생겨난다. 즉 각 동질적 매체는 역동적으로 자유롭게 결합되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한다. 이러한 담론은 그 내용을 예측할 수가 없으며 이것은 정보의 과잉현상, 즉 엔트로피의 증가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창조의 공간으로 거듭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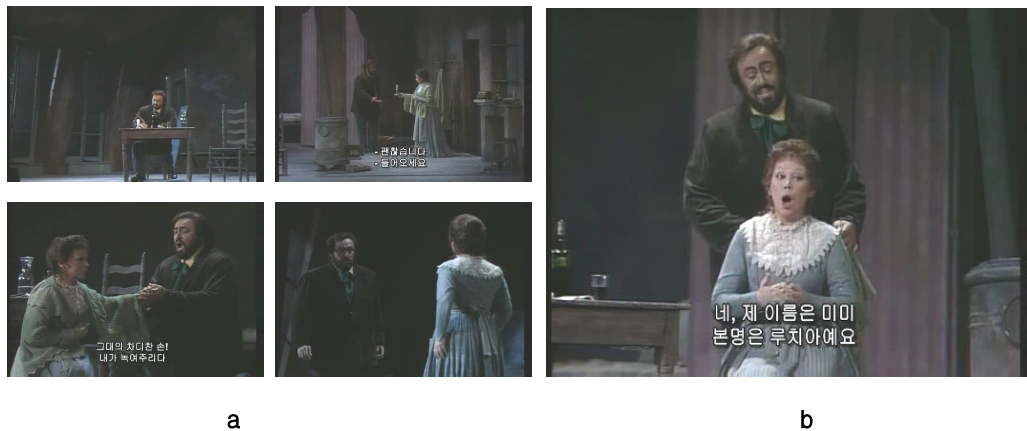
구조 4. 매체와 내용의 유동적 결합

‘꿈의 열쇠’는 커다란 액자 속에 6개의 작은 액자 그리고 그 안에 문자 텍스트와 그림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점층적 구조를 가진다.



<표 4-10> '꿈의 열쇠'의 구조 5

3. 시각텍스트와 청각텍스트의 결합-오페라 실황 중계영상 ‘라보엠’



<그림 4-2> 오페라 실황 중계영상 ‘라보엠’ 중 1막3장의 부분

오페라 ‘라보엠’⁵¹⁾은 시각텍스트인 무대장치와 의상, 배우들의 움직임과 표정 그리고 청각텍스트인 음악(관현악단 연주와 노래)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이다. ‘라보엠’은 총 4막(1막 4장, 2막 2장, 3막 3장, 4막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절에서 다루어지는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라보엠’의 실황중계 영상에서 1막 3장의 내용 중 로돌포와 미미의 아리아⁵²⁾(詠唱, aria)의 한 부분(18초)을 중심으로 한다. 동영상은 움직이는 이미지로 여러 장의 사진 즉 그림텍스트의 연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통합표지층에서 별도의 용어를 쓰지 않고 그림텍스트로 사용하였다.

51) 자코모 푸치니(Giacomo Puccini, 1858~1924)가 작곡한 오페라로 연구에서 라보엠은 1989년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에 의해서 공연된 연주회 실황이다. 그리고 라보엠의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 분석은 1막, 3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52) 오페라·칸타타·오라토리오 등에서 나오는 선율적인 독창부분(드물게는 2중창)으로 영창(詠唱)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레치타티보(서창)와 대조적으로 쓰이는 말이다. 많은 경우 기악의 반주가 따른다. 레치타티보가 대사(臺詞)를 노래하는 것인데 반하여, 아리아는 모든 음악적인 표현수단을 구사하고 가수의 기량을 나타내는 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위 리트처럼 그 자체로서 완결된 노래가 아니라 오페라·오라토리오 등의 내용의 극적인 진전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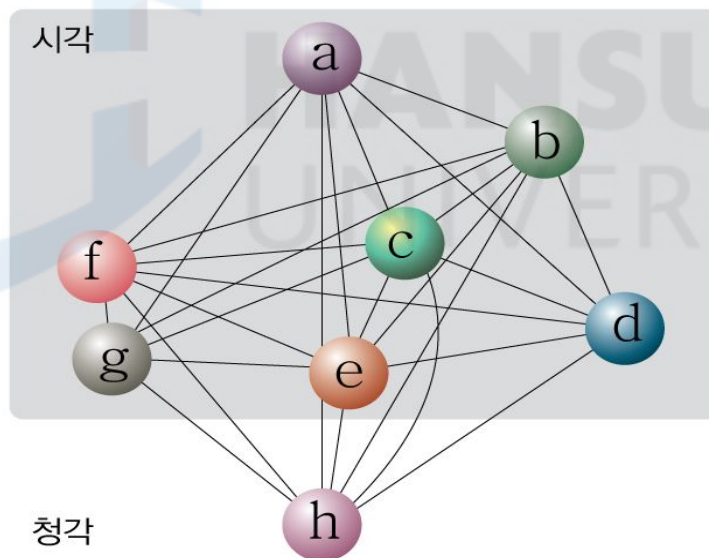
통합표지층	문자텍스트(자막), 그림텍스트(모니터 안에서 재생되는 무대, 의상, 배우 등의 시각텍스트), 청각텍스트(아리아)
의미표현층	가난한 로돌포의 아파트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 “네, 내 이름은 미미라고 해요 본명은 루치아지만요”.
연결매체	오케스트라의 악기, 연기자의 목소리, 연기자의 행동, 무대, 모니터
중요 맥락	이야기의 흐름(로돌포 혼자 남아 있는 방에 미미가 들어오게 되고 이후 미미의 차가운 손을 잡은 로돌포는 아리아 ‘그대의 찬 손’을 부르고 이어서 미미의 아리아 ‘내 이름은 미미’가 이어진다.), 오페라의 이해

구조 1. 교환 가능한 이질적 요소의 결합

오페라 ‘라보엠’의 1막 3장에서 미미의 아리아의 시작부분인 <그림4-2> b는 여자 미미가 ‘내 이름은 미미’를 부르는 장면의 일부이다. 무대는 초라한 아파트를 표현하고 있는데 낡은 난로, 책상 위의 펜, 포도주, 컵, 저채도의 무대 색상 등은 모두 시각기호들이며 이러한 것들은 로돌포의 생활을 말해주는 시각텍스트로 해석주체에 의해 완성된다. “Si, mi chiamano Mimi. ma il mio nome e Lucia.”로 시작되는 아리아는 미미의 대사와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결합된 청각텍스트이며 미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수수한 모습의 로돌포의 모습 역시 하나의 시각텍스트이다. 즉 오페라 ‘라보엠’(1막3장의 18초 분량)은 무대와 배우에 의한 시각텍스트와 청각텍스트인 아리아가 결합된 구조이다. 이러한 오페라를 기록한 실황중계 영상은 문자텍스트를 추가로 결합시킨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이다. 오페라 ‘라보엠’을 이루는 이질적 기호들은 다음과 같다.



<표 4-11> '라보엠'의 구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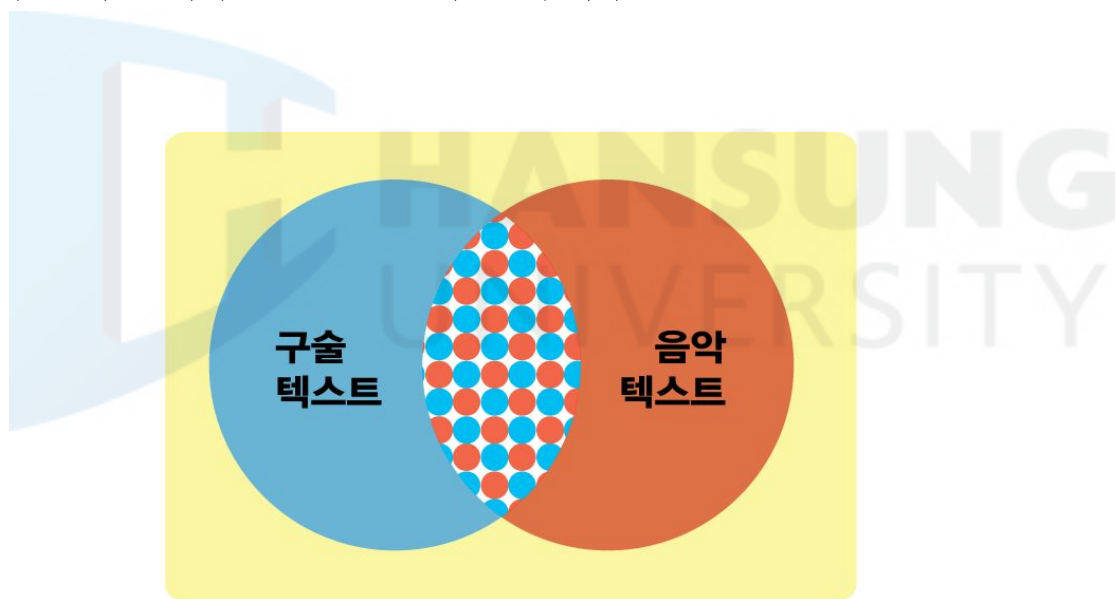


<표 4-12> '라보엠'의 구조 2

이러한 구조는 ‘라보엠’이라는 이야기를 다양한 동질적 매체들을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선택하여 구성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이다.

구조 2. 우성적 진화를 위한 엇물림의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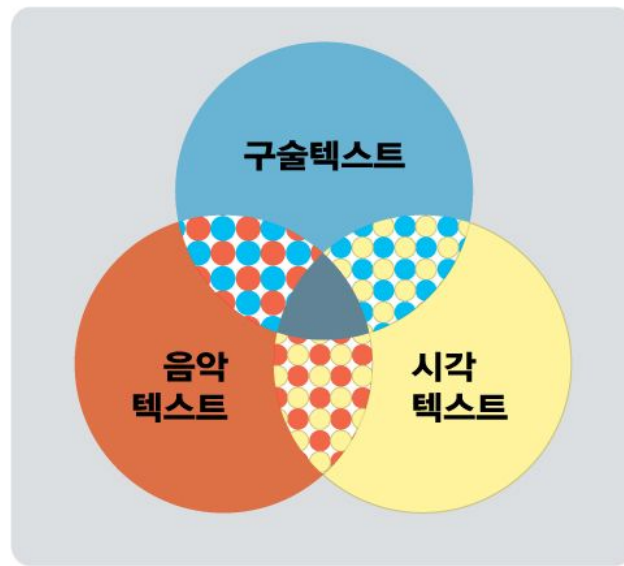
오페라 ‘라보엠’은 이질적 요소의 결합에 의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가 중복 결합된 구조의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이다. 먼저 아리아는 극중 인물의 구술텍스트(대사)와 음악텍스트가 결합된 엇물림의 구조를 가진다. 즉 미미는 극의 구술텍스트(대사)에 해당하는 가사를 음악텍스트에 따라 부르며 자신의 감정을 고조시켜 표현한다. 이것은 단순한 대사의 기능을 넘어 음악적 아름다움과 구술텍스트(대사)를 통한 극의 흐름 그리고 감정의 전달을 모두 수행한다. 이것은 구술텍스트(대사)나 음악텍스트의 한 가지 표현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표4-13> ‘라보엠’의 구조 3

대사와 음악이 결합된 아리아는 다시 무대 위에 펼쳐지는 다양한 기호

(a, b, c, d, e, f, g)에 의한 시각텍스트와 엇물림으로 결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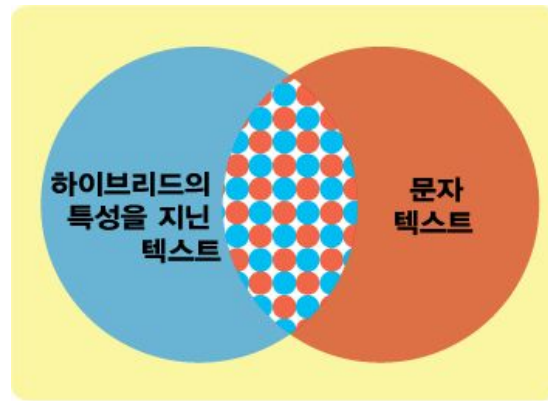


<표4-14> '라보엠'의 구조 4

오페라 '라보엠'은 무대 위에서 생산되는 시각텍스트와 청각텍스트인 오케스트라의 연주, 레치타티보⁵³⁾(recitativo), 이중창, 합창, 아리아 등의 노래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이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다시 영상매체에 의해 기록되면서 문자텍스트와 결합을 하게 된다. 즉 오페라 '라보엠'의 실황 중계영상은 '라보엠'의 이야기를 극중 인물의 구술텍스트(대사)와 음악텍스트, 시각텍스트 그리고 문자텍스트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로 동일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구술텍스트나 문자텍스트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텍스트로 진화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각각의 체계가 가지는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통일된 형태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53) 서창(敍唱). 오페라·오라토리오·칸타타 등에 쓰이는 창법으로 선율을 아름답게 부르는 아리아에 비하여 대사 내용에 중점을 둔다.

「레치타티보」, 『doopedia』, <<http://www.doopedia.co.kr/doopedia/index.do>>, 2011/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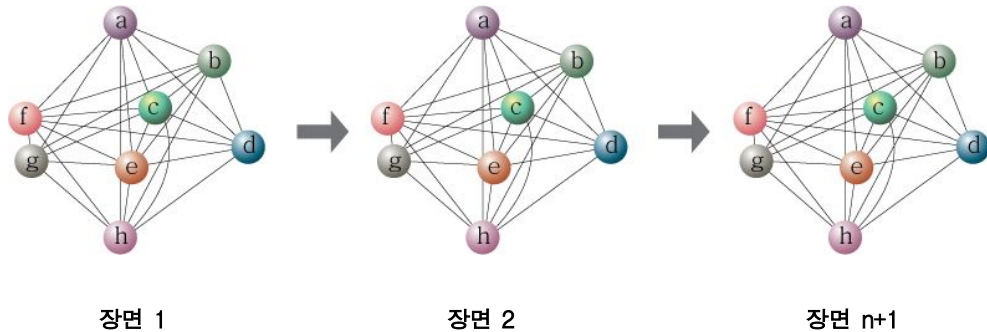


<표4-15> '라보엠'의 구조5

구조 3.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의 자유로운 결합

해석주체는 오페라 '라보엠'에서 장면 장면마다 변동되는 배우의 연기와 노래, 무대 주변상황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텍스트의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순간의 비선형적인 요소들의 결합을 위해 관객의 능동적 태도를 요구한다. 이러한 '하이브리

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와 관객의 태도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혼합되어 거대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를 완성시킨다. 이러한 구조는 해석 주체의 시각에 따른 해석의 차이를 가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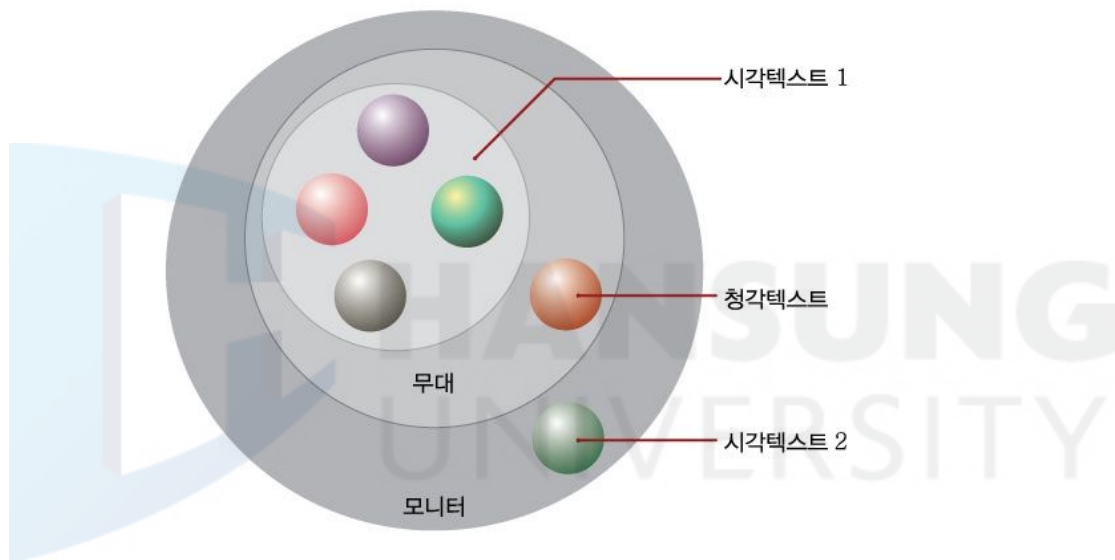


<표 4-16> '라보엠'의 구조 6

미미의 아리아 도입부분(18초)에서도 해석주체가 표현층에 나타나는 의미 '가난한 로돌포의 아파트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와 '네, 내 이름은 미미라고 해요. 본명은 루치아지만요.'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니터 화면을 통해 무대 위에 나타나는 시각텍스트와 들려오는 청각텍스트를 결합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텍스트의 흐름을 이해하고 화면에 나오는 문자텍스트(자막)와 결합을 통해 완전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로서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때 나타나는 시각텍스트에서의 기호들의 결합은 자의적이며 이러한 해석주체의 자유로운 결합에 의한 해석은 엔트로피의 증가로 나타난다. 또 오페라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노래로 말을 하는 상황에 당황스러울 수 있다. 즉 해석주체의 경험이나 상태 등의 맥락에 따라 통합표지층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호와 텍스트들의 결합은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의 결합은 예측 불가능한 구조를 가진다.

구조 4. 매체와 내용의 유동적 결합

오페라 ‘라보엠’에서 매체(파레르곤)와 내용(에르곤)의 관계를 살펴보면 ‘라보엠’은 극의 배경이 되는 무대와 배우의 연기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노래와 음악 등이 병치적으로 결합된 구조로 다양한 시각기호의 결합인 시각텍스트 1과 청각텍스트의 결합된 구조로 파레르곤(무대) 안에 에르곤이 포함된 구조이며 무대는 영상으로 녹화되어 모니터 안에서 재생되는데 이때 무대(파레르곤)은 모니터(파레르곤)안에서 에르곤이 된다. 그리고 무대(에르곤)은 모니터 안에서 문자텍스트(시각텍스트 2)와 결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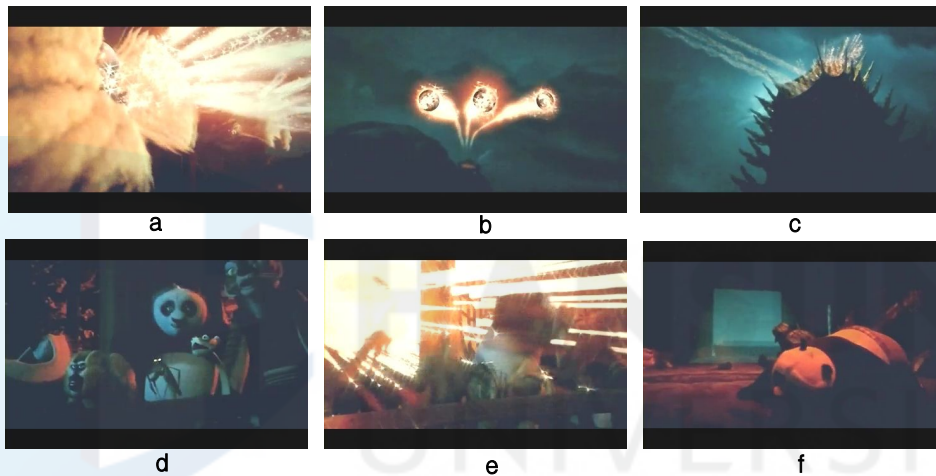


<표 4-17> ‘라보엠’의 구조 7

4. 시각텍스트와 청각텍스트 및 촉각, 후각텍스트의 결합 -영화 ‘쿵푸팬더 2’



<그림4-3> ‘쿵푸팬더 2’



<그림4-4> ‘쿵푸팬더 2’ 부분

2011년 5월에 개봉된 ‘쿵푸팬더(KUNG FU PANDA) 2’는 Full 4D영화로 4D영화란 영화를 관람할 때 기계장비 등의 물리적 장치들을 이용하여 관객이 영화 속의 환경을 체험하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특수효과를 추가한 영화를 말한다. 이러한 효과들에는 전동 의자를 이용한 움직임, 드롭(drop, 다리를 치는 것 같은 효과, 의자속의 장치가 등이나 엉덩이

를 툭 툭 치는 효과 외에 다양한 진동효과가 있으며 좌석의 앞뒤에서 나오는 공기의 분사, 천장에서 부는 바람의 효과, 연기, 섬광과 같은 조명, 향기(냄새), 빗방울 등 다양하다. Full 4D라고 하면 이러한 특수효과와 3D 입체영상이 결합된 영화를 말한다. ‘쿵푸팬더2’는 컴퓨터3D그래픽으로 제작된 영화로 오페라 ‘라보엠’의 실황중계 영상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쿵푸팬더 2’는 여기에 촉각, 후각텍스트가 추가로 결합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이다.

본 절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주인공과 다섯 친구들이 함께 성을 되찾기 위해 탑에서 적들과 싸우는 장면 중 일부이다.<그림4-4>

통합표지층	그림텍스트, 청각텍스트(대사, 음향), 촉각텍스트(바람, 의자의 움직임), 후각텍스트(화약 냄새)
의미표현층	주인공 포와 다섯 친구들은 적의 포화로 튕겨져 나간다.
연결매체	4D플렉스(스크린, 스피커, 의자, 특수장비)
중요 맥락	전편에서 이어지는 용의 전사의 의미와 등장인물들의 관계 이야기의 전개에서 나타나는 갈등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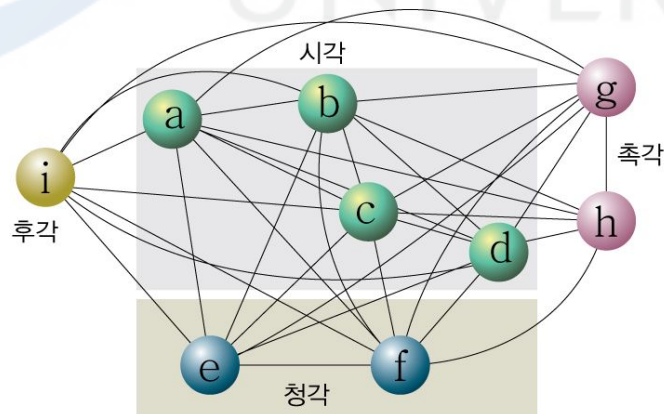
구조 1. 교환 가능한 이질적 요소의 결합

<그림4-4> e는 다양한 도상기호들이 움직이며 형성된 시각텍스트가 음향, 음성 등의 청각텍스트와 절묘하게 결합되어 하나의 거대한 텍스트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폭약이 터질 때에는 의자에 진동이 발생되어 해석주체에게 폭발에 의한 충격을 전달한다. 또한 등장인물들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하는 카메라의 이동 속도에 맞추어 등장인물들과 같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진동의자의 움직임과 폭약과 화살이 날아올 때 불어오는 바람은 현장감을 살려준다. 이어서 나오는 화약 냄새는 폭발로 인한 주변상황에 대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주는 후각텍스트이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전달하는 텍스트들은 모두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생산주체가 선택한 동질적 매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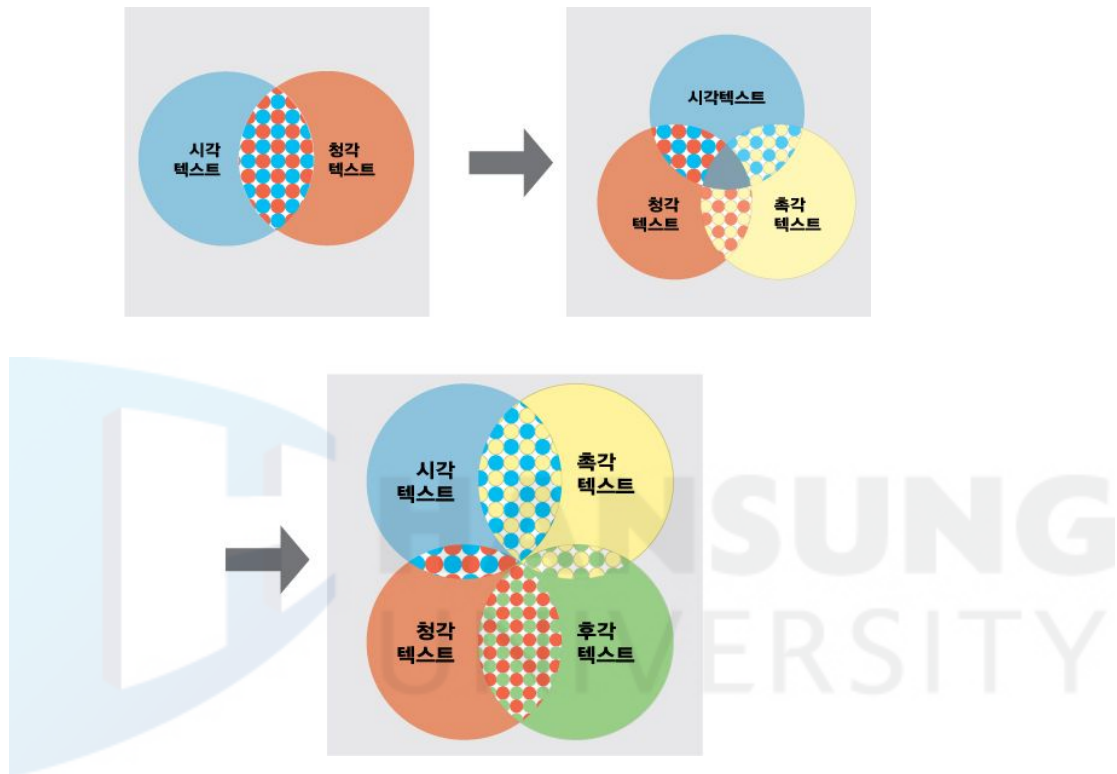
<표 4-18> '쿵푸팬더 2'의 구조 1



<표 4-19> '쿵푸팬더 2'의 구조 2

구조 2. 우성적 진화를 위한 엇물림의 결합

‘쿵푸팬더 2’는 시각텍스트가 청각텍스트와 결합되고 다시 촉각텍스트와 결합되어 마지막으로 후각텍스트와 결합되는 점층적 결합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합은 모두 엇물림의 결합이며 이 결합으로 나타나는 화학적 병치혼합은 텍스트 각각의 개별성을 유지하는 구조를 가진다.



<표 4-20> ‘쿵푸팬더 2’의 구조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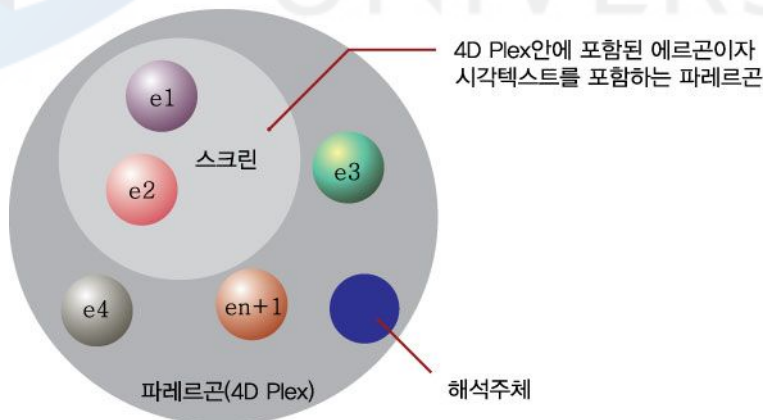
구조 3.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의 자유로운 결합

‘쿵푸팬더 2’는 오페라 ‘라보엠’과 같이 해석주체는 장면 장면마다 변동되는 화면 속의 시각텍스트와 청각텍스트를 지속적으로 결합시키면서 전체적인 텍스트의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쿵푸팬더 2’는 이 두 가지 텍스트 말고도 촉각과 후각텍스트가 더해진 구조이며 오페라는 해석주체

의 고정된 시점에서의 관찰인 반면 ‘쿵푸팬더 2’는 카메라 이동에 따른 다양한 시점이 편집되어 있어 더욱 복잡하고 능동적인 해석의 능력이 필요하다. 즉 분절된 시점의 다양한 시각텍스트와 그에 관계된 청각, 후각, 촉각텍스트를 결합시키는 해석주체의 자율성은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특히 카메라의 이동과 이야기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의자의 움직임과 바람과 공기의 분사에 의한 촉각텍스트, 그리고 꽃향기나 화약 냄새 등의 후각텍스트는 해석주체에게 주는 신선한 재미로 다양한 해석의 즐거움을 제공하며 이러한 텍스트에 의한 해석주체의 반응과 심리적 효과는 예측 불가능하며 해석주체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구조 4. 매체와 내용의 유동적 결합

‘쿵푸팬더 2’는 4D플렉스(Plex)라는 공간안에서 실행되는 영화로 공간매체(파레르곤)안에 해석주체와 내용(에르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파레르곤 밖에서 파레르곤 안에 포함된 에르곤을 감상하던 것과는 다른 구조를 가진다. 이것은 해석주체를 파레르곤 안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에르곤과 해석주체를 동일화한다. 그리고 4D플렉스라는 파레르곤 안의 에르곤은 스크린이라는 파레르곤과 동일화되어 다양한 시각텍스트(에르곤)를 포함하게 된다.



<표 4-21> ‘쿵푸팬더 2’의 구조 4

제 5 장 결론

현대 사회에서 넘치는 정보와 다양한 문화와 매체가 하이브리드되는 현상은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이며 특히 디지털로 대변되는 망형 커뮤니케이션의 구조 속에서 인간은 개별적이고 독립된 삶과 디지털매체를 통한 가상의 사회 속에서 적극적인 교류의 현상을 보이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사회 속에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탈 문자적 성향으로 변질되어 문자텍스트의 위기를 가져왔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기호와 텍스트들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동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자는 현대사회에서 중심어가 된 하이브리드의 개념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현대커뮤니케이션에서 나타나는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를 살펴보고 그 구조를 연구하였다.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외부 구성 요소는 대상, 생산주체, 해석주체 그리고 거시적 맥락 등이 있다. 내부 구성 요소에는 기표와 기의를 포함하는 기호층과 기호층이 결합된 텍스트층이 있으며, 기호층과 텍스트층이 결합되는 통합표지층 그리고 통합표지층의 내용에 해당하는 의미표현층이 있다. 그리고 각 요소들을 연결시키는 연결매체와 미시적 맥락이 포함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기본으로 하여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를 연구하였고 이를 실증적인 사례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연구모델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사례에 대한 연구모델의 적용과정을 통하여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가 디지털 매체에 국한되는 현시적 현상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간표현의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진행한 연구와 사례 분석의 결과로 연구자는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이질적 요소들의 결합이다. 이질적 요소들의 결합은 동질적 매체의 결합으로 개별성과 통일성을 가지는 단순한 이중의 합이 아닌 새로운 의미로서의 결합으로 인간의 총체적 표현수단이다.

2.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상보성의 원리와 엇물림의 결합으로 요소들을 구조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우성적 진화의 모습이다. 특히 엇물림 구조에서 나타나는 화학적 병치혼합은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에서 요소들의 개별성과 통일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며 두 요소의 장점을 혼합하여 더 좋은 결과로 발전시킨다.

3.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에서 각 요소들은 역동적인 엔트로피의 성격을 가지며 이렇게 활성화된 구조는 결정된 상태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의 결합으로 언제든지 해체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늘 역동적이고 불안정한 모습은 정보량의 증가와 다양성을 증가시켜 여러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4.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에 나타나는 매체와 내용과의 관계는 고정되지 않은 비결정적인 유동적 협력관계의 결합으로 다양한 종류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합에 의한 다양한 매체의 융합은 전달과정에서의 감각을 확장시켜 텍스트의 생산주체와 해석주체를 더욱 친밀하게 연결하고 교감을 통한 전달의 사실성을 증가시킨다.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인간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생산주체를 떠나 해석주체에 의해서 거시적 맥락의 구조 안에서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텍스트의 범

주 안에 포함되는 텍스트의 한 부분이며 주체와 객체 사이의 정보와 감정을 전달하는 주요 수단이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그 구조가 가진 불완전성으로 인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또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매체에 의한 미디어의 융합현상과 그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는 단편적인 매체적, 기호적 결합의 결과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메타언어로서의 사용에도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된 ‘하이브리드 특성을 지닌 텍스트’의 구조은 현대의 융합미디어 현상에서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변화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환경에서 나타나게 될 미래의 새로운 형식의 커뮤니케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연구자가 제시한 연구모델이 수정되어지고 다듬어져 보다 완전한 형태로 완성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고영근, 『텍스트이론: 언어문학통합론의 이론과 실제』, 서울: 아르케, 1999.

고위공 외, 『텍스트와 형상』, 서울: 미술문화, 2005.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1997.

김복영, 『이미지와 시각언어』, 파주: 한길아트, 2006

김성도, 『현대기호학강의』, 서울: 민음사, 1998.

김옥동, 『바흐친과 대화주의』, 서울: 나남, 1990.

김종우, 『구조주의와 그 이후』, 파주: 살림, 2009.

박영욱, 『데리다 & 들뢰즈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에서』, 파주: 김영사, 2009.

박영원, 『디자인 기호학』, 청주: 청주대학교 출판부, 2001.

박정자, 『빈센트의 구두』, 서울: 기파랑, 2005.

배식한,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 서울: 살림, 2006.

신방훈, 『문화콘텐츠를 위한 시각예술과 대중문화』, 서울: 진한도서, 2001.

신방훈, 『시각예술과 언어철학』, 서울: 생각의 나무, 2001.

심혜련, 『사이버스페이스 시대의 미학』, 파주: 살림, 2006.

오병근·강성중, 『정보디자인 교과서』, 파주: 안그라픽스, 2008.

이성록, 『비영리 민간조직 갈등관리론』, 서울: 미디어 숲, 2007.

조윤경,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상상력』, 서울: 이화여자 대학교출판부, 2008.

진중권, 『진중권의 현대미학 강의』, 파주: 아트북스, 2007.

철학아카데미, 『기호학과 철학 그리고 예술』, 서울: 소명출판, 2002.

최윤의, 『비언어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홍성욱, 『하이브리드 세상읽기』, 파주: 안그라픽스, 2003.

하이브리드컬처연구소, 『하이브리드컬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한국텍스트언어학회,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서울: 박이정, 2007.

<번역서>

가와노 히로시(川野洋), 진중권 옮김, 『예술·기호·정보』, 서울: 새길, 1999.

Bruno Blasselle, 권명희 옮김, 『책의 역사』, 시공사, 2010.

Georg Lukás, 이주영 옮김, 『루카치미학 제1권』, 서울: 미술문화, 2005.

Georg Lukás, 임홍배 옮김, 『루카치미학 제2권』, 서울: 미술문화, 2000.

Georges Jean, 김형진 옮김, 『기호의 언어』, 서울: 시공사, 2010.

Georges Jean, 이종인 옮김, 『문자의 역사』, 서울: 시공사, 2010.

Graham Allen, 송은영 옮김, 『문제적 텍스트 롤랑/바르트』, 서울: 엘피, 2006.

Jacques Derrida, 김보현 편역, 『해체』, 서울: 문예출판사, 1996.

Jean Bottero·Marie-Joseph Steve, 최경란 옮김, 『메소포타미아』, 서울: 시공사, 2009.

Jhon Fiske, 강태완·김선남 옮김, 『커뮤니케이션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John A. Walker·Sarah Chaplin, 임산 옮김, 『비주얼 컬처』, 서울: 루비박스, 2006.

Michel Foucault, 김현 옮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서울: 민음사, 1995.

Noëlle McAfee, 이부순 옮김, 『경계에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울: 엘피, 2007.

R. A. Beaugrande & W. Dressler, 김태옥·이현호 공역, 『텍스트언어학 입문』, 서울: 한신문화사, 2002.

Roland Barthes, 김인식 편역, 『이미지와 글쓰기』, 서울: 세계사, 1995.

- Rudolf Arnheim, 정용도 옮김, 『예술과 엔트로피』, 서울: 눈빛, 1995.
- Umberto Eco, 서우석 옮김 『기호학이론』,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6.
- Vilém Flusser, 김현진 옮김, 『그림의 혁명』,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Vilém Flusser, 윤종성 옮김,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 서울: 문예출판사, 2002.
- Vilém Flusser, 김성재 옮김, 『코뮤니콜로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 Walter J. Ong, 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2006.
- W.J.T. Mitchell, 임산 옮김, 『아이코놀로지: 이미지, 텍스트, 이데올로기』, 서울: 시지락, 2005.

<학위논문>

- 김경란, 「다문화시대의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5.
- 김민정, 「현대에 있어서 이미지와 텍스트의 실험적 조형성과 알레고리 표현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7.
- 김은지, 「하이브리드 공간디자인의 시적 의미체계에 관한 해석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7.
- 김재영, 「메타동역학의 열개와 성격: 양자론과 상대론의 동역학적 이론 구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1.
- 김지면, 「회의하는 시각언어의 매체성 확립을 위한 프랙탈 해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7.
- 박나리, 「학술논문의 텍스트성(textuality)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9.
- 신경남, 「현대 후기 회화의 다문화적 Trauma연구」,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9.
- 유재원, 「복잡계 이론을 통한 한국 교회의 유기적 예배 가능성에 관한

- 연구 :이머전트 교회 운동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0.
- 조정아, 「디지털시대 문해의 교육적 함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0.
- 최인영, 「알레고리의 관점으로 본 해체적 실험성과 디자인 ‘형상언어’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7.

<학술 논문>

- 고영근, 「텍스트의 개념정립과 텍스트 처리에 관한 문제」, 『텍스트언어학 제19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5.
- 강진숙, 「탈문자시대의 미디어 문화와 이용자에 관한 이론적 연구: 포스터, 플루서, 비릴리오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51호』, 한국출판학회, 2006.
- 강진숙, 장성준, 「텔레마틱 사회의 대화형 매체와 소통형식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제34권 제1호 통권 제54호』, 한국출판학회, 2007.
- 김민정, 「모던 디자인에 있어 이미지와 텍스트의 실험적 조형성과 알레고리 표현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8 no.4, 한국기초조형학회, 2007.
- 김상환, 「테리다의 텍스트」, 철학사상 제27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8.
- 김성도, 「상호매체성의 융합기호학적 함의: 하이퍼미디어에서 발견되는 텍스트와 이미지의 융합성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제13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2.
- 김영도, 「융합 콘텐츠를 위한 장르 전략: 포토포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1권 3호 제3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 김요한, 「디지털시대의 글쓰기」, 독일언어문학 제27집, 독일언어문학연구회, 2005.
- 김은령, 「이미지를 통한 텍스트 읽기: 블레이크의 상호매체성과 현실의

- 식」, 현대영어영문학 제51권 제4호,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2007.
- 김일철, 「복잡계 이론에 기초한 IMC의 개념화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홍보학회, 2001.
- 김상환, 「사이버시대의 존재론적 이해를 위하여」, 철학논총 22, 새한철학회, 2000.
- 김재영, 「양자역학의 인과적 해석과 입자 궤적의 실재성」, 과학철학 제11권 제2호, 한국과학철학회, 2008.
- 김지면, 「시각언어의 디자인적 회의문자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5권 3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09.
- 김지면, 최인영, 「Static 텍스트 관점에서 본 시(詩)적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11권 특별호 2집,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05.
- 김학진, 「복잡계로 본 기초과학」, 과학기술정책 제14권 제1호 통권 제145호, 2004.
- 김희영, 「인터랙티브 아트 of 창발성에 관한 분석」, 디지털콘텐츠학회지 9(1),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08.
- 박나리, 「학술논문에서 나타난 응집성(coherence)과 응결성(cohesion)의 사상(mapping)양상」, 국어학 제56집, 국어학회, 2009.
- 박여성, 「융합기호학(Synchretische Semiotik)의 프로그램으로서의 음식기호학」, 기호학연구 제14집, 한국기호학회, 2003.
- 박영욱, 「증강현실과 디지털 이미지: 20세기 이후 미술의 흐름에서 본 디지털 예술의 의미」, 시대와 철학 21권 4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0.
- 반성완, 「루카치 미학의 기본사상」, 문예미학 제9호, 문예미학회, 2002.
- 변윤희, 현은자, 「기호학관점에서 본 그림책의 글과 그림읽기」, 유아교육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유아교육학회, 2002.
- 임유영, 「빌렘 플루서의 기술적 상상력과 새로운 글쓰기」, 충남대학교 인문학연구 제36권 제1호 통권76호, 충남대학교, 2009.
- 송채경, 「프랙탈 이미지의 창발성에 의한 플로랄패턴」, 디자인학연구

- 제24권 제1호, 한국디자인학회, 2011.
- 신혜경, 「문학과 조형예술 간의 상호 텍스트성에 관한 연구」, 미학·예술학 연구 제26집, 한국미학예술학회, 2006.
- 신혜경, 「문학적 이미지와 회화적 이미지: 로브-그리예와 마그리트의 작품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 연구 제54집, 한국불어불문학회, 2003.
- 안장혁, 「괴테와 데리다의 사유구조적 유사성에 대해」, 괴테연구 제16집, 한국괴테학회, 2004.
- 이재현, 「디지털 에크프라시스: “멀티미디어로의 전환”과 언어적 표상」, 『한국언론학보 53권 5호』, 한국언론학회, 2009.
- 이중환, 「기호상징체계로서의 글과 그림에 관한 미학적 고찰」, 조형미디어학 10권 2호,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2007.
- 이종근,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우르-남무 법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2집, 한국법학회, 2007.
- 이주영, 「루카치의 미메시스론을 통해 본 예술과 현실의 관계」, 한국미학예술학회지 6권, 한국미학예술학회, 1996.
- 이주영, 「루카치의 미술관: 회화에 있어서의 리얼리즘」, 문예미학 제4호, 문예미학회, 1998.
- 이현우, 「하이브리드 텍스트로서의 무버셜과 수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BMW 무버셜 중심의 사례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연구 통권 제73호, 한국방송광고공사, 2006.
- 장은수, 「브레히트의 연극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과 문화상호주의」, 단외국문학연구 제25호, 한국외국어대학교외국문학, 2007.
- 전윤희, 「텍스트와 이미지의 상호역학관계: 문자체계의 기호체계 전이와 변형」, 세계문학비교연구 vol.22, 세계문학비교학회, 2008.
- 지연숙, 「고전소설 공간의 상호텍스트성」, 한국학연구 제36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 한국성서고고학회, 「함무라비 법전」, 성경과 고고학 제47호, 한국성서고고학회, 2005.

홍승용, 「루카치 후기미학의 인식론적 기초」, 문예미학 제4호, 문예미학회, 1998.

Mermin. N. David., "The Ithaca interpretation of quantum mechanics",
Pramāṇa Volume 51, Indian Academy of Sciences, 1998.

Themann.Th., 변상출, 「미적유아론: 루카치의 다원주의 예술철학」, 문예미학 제3호, 문예미학회, 1997.

<기타 자료>

「상보성」, 『두산세계대백과사전』, 개정판, 서울, 두산동아, 1996.

『doopedia』, 두산동아, <<http://www.doopedia.co.kr/doopedia/index.do>>, 2011/6/22.

『chosun.com』, 전병근, 「잉카제국 결승문자 뜻 풀었다」, 2005.08.13, <<http://news.chosun.com>>, 2011/5/18.



ABSTRACT

Structural Analysis of Hybrid Text

Kim, Young-Ho

Major in Visual & Digital Media

Communication

Dept. of Media Design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Human communication involves a complex use of various signs, which is increasingly evolving to incorporate the freer usage of complex signs through media convergence based on digitalized mediums. The hybridization in communication also appears in the area of text, where different types of signs combine to form a new type of text. This study prescribes the term “Hybrid Text” to this phenomenon. Hybrid text is a holistic tool for communication created through prepotency evolution. As such, it contains a duality where it pursues individuality and uniformity at the same time, and includes concepts such as non-linearity, amorphism, and diversity. Hybrid text also presents a new method of expression which is unpredictable and allows for a multitude of interpret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hybrid texts. So far, no previous studies have been done on the characteristics of hybridization in the communication process. A structural analysis of

hybrid text provides a basis on which we can estimate the effects and value of hybridization in the context of increasing media convergence.

Media convergence and the emergence of new forms of media is an on-going process, continuously developing and evolving. Such evolution will continue in a faster pace while adding new complexities. Thus, a study on the structure of hybrid text also allows us to predict and prepare for the new types of media and texts that will emerge in the future.

As there is a lack of existing literature on hybridization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 this paper uses a concept of 'hybrid' derived from studies done in related fields such as semiotics, aesthetics, philosophy, physics, and information theory. This concept, then, was applied to text to formulate a foundational understanding of hybrid text.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paper categoriz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st the elements of hybrid text in the following four types: the combination of interchangeable heterogeneous elements, the combination of correlations for prepotency evolution, the free and unpredictable combination of elements, and the flexible combination of media and content. The paper applies these four categories to analyze specific cases.

The study results show that the external constituents of hybrid text are the subject(or object), the agent of production, the agent of interpretation, and the macro-context. Internally, hybrid text is composed of four layers: the symbolic layer and text layer which include the signifier(signifiant) and the signified(signifié); the superficial synthetic layer which integrates the symbolic and text layers; and the semantic layer which expresses the meaning of the text. These internal layers are connected by the intermediate medium and micro-contex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ructure of hybrid text can be

described as follows:

1. Hybrid text is the combination of heterogeneous elements resulting from the inter-textuality arising in the communication process. The combination of heterogeneous elements is not a sum of two different elements containing individuality and unity, but a new type of combination between similar(homogene) mediums and a holistic tool of human expression.

2. Hybrid text is a result of prepotency evolution based on the complementarity principle and the combination of correlations. In particular, the juxtapositional mixture which appears in the correlational structure explains the individuality and the unity amongst the elements that constitute the hybrid text, and combines the strengths of the different elements to develop into a more advantageous product.

3. The constituents of hybrid text come together in dynamic entropy.

The resulting structure is an unfixed combination of unpredictable elements that can always disband and restructure. The always dynamic and unstable form lends to a multitude of interpretations by increasing the amount and diversity of information.

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um and content of hybrid text is that of an unfixed, undetermined combination of flexible cooperation and appears in diverse forms. The various hybrid texts formed through these combinations expands the level of sensitivity in the communication process. This in turn allows the agent of production and the agent of interpretation to connect more intimately and thus, increases the substantiality of the communication.